

통(通)성경과 무교회 지역 전도  
: 한시미션 사역을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박병호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Copyright © 2024 Byungho Park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TONG BIBLE AND EVANGELISM FOR NON CHURCH AREA : A CASE STUDY OF HANSI MISSION**

Byungho Park

Morning Star Church, Seoul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ong Bible and the evangelism in non-church areas.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theoretical studies on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preaching related to the Tong Bible, but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the theoretical practice of the Tong Bible. In the 27 years of Dr. Byoungho Zoh, who is leading the globalization of the Tong Bible, we will examine how the life of scholarship and practical evangelism has been able to achieve academic culture in balance and harmony. Since we have proved that faith is not only intellectual knowledge, but also a fruitful life through practical life, I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that part.

Based on the above objectives, the research tasks were set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Tong Bible? Second, what is the definition of evangelism and how does it appear in the New Testament? Third, what about the Tong Bible and evangelism?

As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we examined Byoungho Zoh's theology of unification and the materials of the Hansi Mission where he worked in the 90s. Correspondence applies the concept of Tong to the way of reading the Bible, and explains

how ideas from different realms of the East and the West can coexist and develop in harmony and balance.

In this paper, you will see how God's heart is flowing through the Tong Bible and the Hansi Mission. Globalization is not easy. The globalization of the Bible continues through balanced theory and practice. This is important because if you are biased, you will be dangerous, and if you lose your balance, you will lose everything later. The Bible is a documentary testimony and a living history. Records that allow us to look back on events of a long time ago became the basis of this paper. I hope that I can contribute in some small way to those who want to research the Tong Bible more deeply and to those who study the Tong Bible.

## 국문초록

### 통(通)성경과 무교회 지역 전도 : 한시미션 사역을 중심으로

박병호

새벽별교회, 서울

본 논문은 통(通)성경과 무교회지역 전도관계를 연구한 논문이다. 그동안 통(通)성경과 관련된 말씀 사역과 설교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많았지만, 통(通)성경의 이론적 실천의 장(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였다. 통(通)성경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조병호 박사의 2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학문과 실천적 전도의 삶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학문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는 학자 조병호만이 아니라, 전도자며 역사학자이고, 오랜 시간 100여 권의 책을 집필할 정도로 탁월한 저자이기도 하다.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적 앎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천적 삶으로 열매가 있는 삶인 것을 증명해 내었기에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통성경이란 무엇인가? 둘째, 전도에 대한 정의와 신약성경에서는 전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셋째, 통(通)성경을 통한 전도는 어떠한가?

이론적 배경으로는 조병호의 통(通)신학과 그의 90년대 사역했던 한시미션의 자료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통신학은 통(通)이라는 개념을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하였고,

동서양의 다른 영역에서의 사고들을 조화와 균형 속에서 공존과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농어촌에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고, 무교회 지역이 많았다. 지금은 어떨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더욱 많아져서 무교회 지역이 더 많아졌다. 한시미션의 성경과 전도에 대한 사역과 섬김은 상세한 자료들을 지금도 고스란히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가 되었다.

본 논문이 통(通)성경과 한시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세계화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성경의 세계화가 균형잡힌 이론과 실천을 통하여 계속 진행중이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치우치면 위험해지고, 균형을 잃으면 나중에 다 잃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의 증거물이며, 살아 있는 역사다. 오래전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록물들이 이 논문의 근간이 되었다. 통(通)성경을 좀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과 통(通)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적으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목차

감사의 글 .....	1
I. 서론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방향성 .....	5
II. 통(通)성경과 전도	
1. 통(通)성경 역사 .....	7
1) 통(通)성경이란? .....	12
2) 통(通)이란? .....	12
3) 통(通)의 개념 .....	14
4) 통(通)의 방법론 .....	19
5) 20세기 한국 교회와 통(通) .....	23
6) 통(通)으로 성경 읽기 .....	25
시간 · 공간 · 인간을 통(通)으로 .....	28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通)으로 .....	28
제사장 나라 · 5대 제국 ·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	29
성경 전체를 통(通)으로 .....	31
7) 성경통독이란? .....	32
8) 통(通)신학이란? .....	39
2. 전도 연구 .....	42
1) 전도의 정의 .....	42
2) 신약성경에 나타난 전도 .....	45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	45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동기 .....	48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 .....	49
초대 교회들의 전도 .....	51

한국교회에서 활용했던 전도 방법 .....	54
3) 통(通)성경을 통한 전도 .....	60
Ⅲ. 무교회지역 전도	
무교회 지역이란? .....	64
무교회 지역 전도 .....	67
무교회 지역 전도 방법 .....	70
무교회 지역 전도 평가 .....	72
Ⅳ. 통(通)성경을 통한 무교회지역 전도 실제 .....	73
1. 한시(限時)미션 .....	73
한시미션의 소개 및 약사 .....	76
한시미션의 성격 .....	77
한시미션 대표 - 조병호 목사 .....	78
한시미션 사역 소개	
생명뿌리기사역 (매년 8월 둘째 주간) .....	79
한시편지 사역(생명뿌리기 사역 이후 - 물주기사역 이전) .....	83
2. 성경통독 사경회	
성경통독 사경회 (매년 1월 겨울 성경통독, 7월 여름 성경통독) .....	84
성경통독의 성과 .....	87
3. 생명뿌리기 사역	
생명뿌리기 사역을 위한 준비 모임 .....	89
자비량 선교 .....	94
경로잔치 .....	98
노천성경학교 .....	101
수요찬양예배 .....	103
축호전도 .....	104
축호전도 결과 .....	105



목요캠프 .....	107
마을잔치 .....	108
한시산타 .....	111
언론을 통해 본 한시미션 생명뿌리기 사역 .....	111
4. 한시문화마당 다서연(茶書演) .....	114
5. 한시물주기 사역 .....	115
V. 결론	
결론과 제언 .....	119
참고문헌 .....	121

## 표 목차

표 1 - 한국기독교청년 학생운동의 네 시기 .....	104
표 2 - 생명뿌리기 사역 .....	81
표 3 - 생명뿌리기 사역 현황 .....	82
표 4 - 기도시간 .....	93
표 5 - 한시문화마당 다서연 .....	114
표 6 - 한시물주기사역 .....	118

## 그림 목차

그림 1 - 성경 편제 구성 - 구약 .....	34
그림 2 - 성경 편제 구성 - 신약 .....	34
그림 3 - 통(通) 성경 노래 .....	37
그림 4 - 한시미션 마크 .....	77
그림 5 - 여름성경학교 초청장 및 행운권, 포스터 .....	103

## 부 록

부록 1 - 한국기독교청년 학생운동의 네 시기 .....	125
부록 2 - 10분 스토리 .....	127
부록 3 - 성경통독의 특징 12가지 .....	130
부록 4 - 성경통독 사경회를 마친 학생의 감사편지 1 .....	134
부록 5 - 성경통독 사경회를 마친 학생의 감사편지 2 .....	135
부록 6 - 생명뿌리기 사역 준비 모임에서 조병호의 글 .....	135
부록 7 - 생명뿌리기 사역을 위한 사전 준비 모임 .....	137
부록 8 - 한시 사역자들의 자비량 헌신에 대한 결단의 글 .....	139
부록 9 - 노천여름성경학교 일대일 성경공부 교재 전문 .....	140
부록 10 - 한시 선교회 여름 사역 성경 암송 구절 .....	143
부록 11 -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의 기자는 반응과 평가 .....	145

## 감사의 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계획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경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깊어지고, 사랑에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시간입니다. 통(通)성경을 만나고,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배우게 되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이 기대가 됩니다.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나 됨에 결정적 단초가 되시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권종매 집사님, 35년 넘도록 성장과 성숙의 바탕이 되어주신 강병두 담임목사님과 김기자 사모님 강은총 전도사, 이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김성대, 김종학 장로님 그리고 늘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지금까지 섬겨주신 사랑하는 나의 새벽별교회 공동체. 더디지만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었기에 오늘의 논문이 가능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통(通)성경의 길로 안내해준 통성경 길라잡이 이성훈 목사님, 약 1년여의 시간을 통독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 나눠주신 은사 조병호 박사님과 통독원 식구들, 변곡점이 될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중후한 보이스로 성경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박사님, 자상하게 섬세하게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영래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공부하며, 희노애락을 나눈 동기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 곁에서 25년을 한결같이 사랑해준 아내 김선주, 그리고 처갓댁 모든 가족의 응원과 격려는 내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고향친구 장선이와 그의 남편 최석영 성도는 필요한 책들을 아낌 없이 사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었습니다. 감사를 전합니다. 늦은 밤까지 문서 수정을 도와준 김인수 집사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지면에 다 밝히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와 후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문안합니다.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길을 가게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한권이면 충분합니다!

2024년 3월

박병호

## I. 서론

###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살아가면서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매번 느끼고 산다. 시골에서 자란 본 연구자는 어릴 때 정월 대보름이면  
동네에서 널뛰기<sup>1</sup>를 했던 적이 있다. 혼자 할 수 없고, 누군가와 더불어  
해야 하며, 균형이 매우 중요한 민속놀이이다. 널판에서 뛰어 오르내릴 때  
그 긴장감은 매우 크다. 자칫 잘못해서 균형을 잃으면 다칠 수도 있다.

우리네 삶 가운데 균형과 조화를 갖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이라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조화롭게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다름 가운데 이해와 존중을, 흠어짐 가운데 하나됨을, 치우침  
속에서 균형을, 독특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나라가 있다. 제사장 나라를 수렴(convergence)한 하나님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를 조병호는 다섯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입니다.

넷째,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

<sup>1</sup> 널뛰기는 정월 대보름에 여성들을 위한 놀이였다. 옛날에 여자들은 함부로 바깥을 다닐 수  
없었기때문에 널을 뛰면서 담 너머 마을을 구경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민속놀이이다.

다섯째,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입니다.<sup>2</sup>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다섯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입니다.<sup>3</sup>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극복 과정으로 민족적 아픔과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되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그 값을 툭툭히 치르고 있다. 용서가 없고, 평화가 없고, 한 영혼의 가치가 애완동물보다도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는 행복하며 영원한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제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이다. 세상 나라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있는 나라이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죄(히:πᾶπτῶν, 헬:ἁμαρτία)라고 한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겼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단이 생겼다. 이 깊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놓으셨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진리를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살고 있다(롬1:18-23).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걸음은 치우침과 선을 넘어 틀림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래서 균형을 잃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데로 살고 있다. 균형이라는 것은 중심이

<sup>2</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47-48.

<sup>3</sup> Ibid., 220-221.



있다는 말이다. 널뛰기도 그 중심에 널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마 또는 짚 묶음을  
 뭉쳐 놓는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중심 되지  
 않으면 틀리고, 치우치며, 선을 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말씀은 곧 생명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요1:1)이시기 때문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성육신(incarnation)이라고 한다(요1:14).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히10:20)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며 살고 있다. 그로 인해  
 중심 잡아 줄 균형을 잃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치우치게 되어 있다. 그 결과로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 그것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잃고 쓸림 현상을  
 낳게 되었다.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이다. 삶이란 치우침 없는 균형과 조화이다. 행동 없는 지식도 위험하고, 지식  
 없는 행동도 위험하다. 성경 없는 삶이 없고, 삶이 없는 성경은 없다.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된 진리이다. 듣고 아는 것은 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교회는  
 위험하다. 균형을 잡아 주고, 생명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말씀 회복이 필요하다.  
 균열을 회복으로, 분열을 하나로, 분단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즉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다. 어쩌면 현세대에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교회가 이러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중심 되는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과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성경

공부에서 끝나지 않고 배운 바를 삶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은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이다(마28 ;19,20).<sup>4</sup> 이것을 실천함에도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단 사이버 종교 교주에 대해 방송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고,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전도와 선교에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잘못된 성경 해석과 이해가 가져온 폐단이다. 성경 66권을 십자가 원스토리(One-Story)로 이해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필자는 1999년 신학을 마치고 중국에서 4년간 선교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선교사가 성경도 잘 모르고, 뭘 가르쳐야 할지 겁났던 시간이 있다. 성경 66권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지가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대학원 3년 동안 공부를 하며 신학에 대한 깊은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했다. 5년간 선교단체에서 성경과 전도를 배웠지만 66권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어느 한 권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읽고 잘 공부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성경을 통(通)으로 봐야 하는 중요성과 읽고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한시미션의 뿌리기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균형을 잃고 치우친 성경 읽기의 위험성과 열매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다. 목회자들은 부지런히 성경 66권을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가르쳐 행하도록 해야 한다(수1:7; 23:6; 잠4:27).

---

<sup>4</sup> 마태복음 28:19,20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다음은 순종이다. 그 순종은 구체적으로 가정과 경계를 넘어 이웃을 향해 나가야 한다. 나감에 있어 치우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믿음직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면 열린 마음을 향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시미션의 생명뿌리기사역(전도)과 성경통독사경회를 통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신앙부흥과 교회 부흥을 이끌 수 있을지를 증명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방향성

본 연구는 통(通)성경과 통(通)성경을 통한 무교회 지역 전도의 관계를 이론적인 배경과 실제 사역의 현상이었던 한시미션의 생명뿌리기사역(1988~2014)을 통하여 믿는 성경을 어떻게 전도의 장으로 균형 있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먼저 이론적 배경은 조병호의 저서들과 다양한 자료들을 통하여 통(通)성경의 역사와 성경통독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다양한 선교회와 무교회지역 전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통(通)성경을 통한 전도의 근간이 되었던 한시미션의 사역들을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I장에서는 통(通)성경의 역사를 통해 통(通)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통(通)의 구체적 의미와 개념과 방법론까지 밝히고, 성경을 통(通)으로 보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20세기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병호의 논문을 통해 제시하려고 한다. 통(通)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중요성과 통(通)신학에 서양과 동양의 신학적 장점들을 통으로 녹여내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전도가 무엇이고,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했고, 이것이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어졌는지, 그리고 통(通)성경을 통한 전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III장에서는 무교회 지역과 무교회 지역 전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무교회지역 전도를 실천했던 교회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지금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은데 목회자들조차도 지역적 불균형을 겪고 있어서 농어촌같은 경우 더 악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노령화로 무너지고 있는 무교회지역에 대한 도시교회들의 관심과 전도와 선교가 더 시급하다.

IV장에서는 통성경을 통한 무교회지역 전도 실제에 한시미션의 생명뿌리기사역을 그동안의 자료집과 신문보도와 인터뷰등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주관적 경험이 없지만, 자료(1988년~1998년의 자료를 중심으로)를 통한 객관적 입장에서 차근차근 살피고 조사해서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다보니 현장 없는 자료에 국한된 한계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한편으로는 현장에 없었기에 더 구체적인 객관적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V장에서는 결론과 제언으로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본 필자는 성경과 전도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고, 중국에 4년간 선교사로서의 현장경험이 있다. 통(通)으로 성경을 보는 중요성과 이론과 실제라는 균형과 조화를 전도의 현장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늘 고민했다. 그런면에서 한시미션의 생명뿌리기사역은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부디 우리 한민족(Korean)이 하나님의 꿈을 앞당기는 일에 통(通)성경의 세계화를 통해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 II. 통(通)성경과 전도

### 1. 통(通)성경 역사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는 로마의 원로원들에게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는 것은 항상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고 연설했다.<sup>5</sup>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은 구전(transmitting by word of mouth)이던, 책이든, 듣고, 보고,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역사라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역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역사(history)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지난 시대에 남긴 기록물,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등을 가리킨다. 또 인간이 거쳐온 모습이나 인간의 행위로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단어로도 쓰인다...역사 연구란 이야기(narrative)를 통해 연속된 사건들을 검증하고 분석하며 종종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규정” 하는 것이다.<sup>6</sup>

그리고 이정희는 “역사는 역사가가 관련자료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을 의미 있는 서술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sup>7</sup>라고 정의했다. 역사라는 것이 모든 사실들을 다 정리할 수는 없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 있는 서술이라는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sup>5</sup> 샘 와인버그, 『역사적 사고와 역사교육』 한철호 역 (서울: 책과함께, 2006), 67.

<sup>6</sup> 『역사』 <https://ko.wikipedia.org/wiki/%EC%97%AD%EC%82%AC> [2023.3.5. 최종 접속]

<sup>7</sup> 이정희, 『교회 교육으로서 역사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2, 7.

요한 하위징아는 “역사란 언제나 과거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며 그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언제나 과거 속에서 찾는 의미를 파악하고 밝히는 것이다……역사란 문화가 그 과거에 관해 밝히는 정신적인 형태다.”<sup>8</sup>라고 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역사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들의 가교(brige building)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석우 교수는 그의 저서 『기독교적 사관과 역사의식』에서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다.

- 1) 인간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
- 2) 어떠한 형태로든지 남아 있는 인간 과거의 유물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도구, 문서, 금석문들에 적용되는 말
- 3) 자료들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일과 이들을 잘 정리하여 타인들이 사용하고 읽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훈련과 학습을 의미하는 말
- 4) 역사가가 최종적으로 기술을 완료한 저작<sup>9</sup>

역사는 말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와도 같다.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현재의 삶에 발전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역사에 대한 공부이다.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것도 과거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기록이 없는 역사는 있을 수 없다. 역사를 존재케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시간 속에서 점점 발전하여 문명이 되었고,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살고 있다. 수 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역사에 대한 고찰이다. 사람, 시간, 장소, 문화, 문명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이야기와 활자를 통해 세대를 이어주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sup>8</sup> 요한 하위징위, 『역사의 매력』 이광주 역 (서울: 길, 2013), 111-114.

<sup>9</sup> 이석우, 『基督教史觀과 歷史意識』 (서울: 성광문화사, 1989), 15.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대부분 자신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다. 그 경전은 자신들의 믿음 또는 교리를 문서로 기록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는 성경, 카톨릭은 성경과 외경, 불교는 불경, 이슬람은 코란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고 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3:16)고 했다.

그렇다면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왜 성경이 중요한가? 그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1:1)고 증거하고 있다.

틴데일은 말씀, 즉 로고스(Logos)라는 개념이 현대 독자들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복음서의 고대 독자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다섯가지 병행들을 이야기한다.

- 첫째,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격화되었다.
- 둘째, 스토아 개념에서 피조물에 질서로 채우고, 부여하며 인간의 무지를 없애주는 신적 이성으로 간주된다.
- 셋째, 필론의 저작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창조의 대리인 및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재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 넷째, 랍비적 사고에서 이 말은 선제적 토라와 동일시된다.
- 다섯 번째, 영지주의적 저작에서 영적 물질적 세계를 연결시키는 하늘의 특사이다.

이상의 다섯가지 병행들을 통해 보듯이,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와 동일시하려고 하면서 당시 널리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이러한 병행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서 기자 자신이 말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sup>10</sup>

<sup>10</sup> 콜린 G. 크루즈, 『틴데일 신약주석 시리즈 4 요한복음』 배용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91-92.

이재철은 그의 책에서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고 로고스인 주님이 곧 이 말씀” 이라고 했다.<sup>11</sup> 요한은 또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 한다.

노진준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에 함께하셨음과 1절과 2절을 통해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창세전부터 계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동역자로 ‘그’ 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sup>12</sup>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신인(神人)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일4:2).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1:14). 영이셨던 하나님(요4:24)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요일4:3).

이렇듯 중요한 성경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기에 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균형과 조화가 없는 틀리고, 치우치고, 선을 넘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 부흥시기를 면면히 살펴보면 기복(祈福)주의 신앙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도 없이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sup>11</sup> 이재철, 『요한과 더불어 - 첫 번째 산책』 (서울: 홍성사, 2004), 24.

<sup>12</sup> 노진준, 『요한복음 1-4장 읽는 설교 1』 (서울: 죠이박스, 2018), 14.



없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20장 31절 )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장 13절)

둘째,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엡2:1-22). 그 결정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 그 순간이다(요19:30).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살길의 휘장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셨다(히10:20).

다음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교훈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보여주셨기에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줄 아는 것이다(히10:36).

책 중의 책은 성경책이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 성경이다.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어 있고, 다양한 번역서, 주석서 등이 나와 있다. 그런 중에도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역사순으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주제별로 묶여서 편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천 번 이상 읽으면서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중요성을 깨달은 조병호 박사는 『통(通)독성경』을 통하여 역사순으로 재편집하여 출판하여 통(通)성경의 세계화를 이루고 있다.

### 1) 통(通)성경이란?

그렇다면 도대체 통(通)성경이란 무엇인가? 조병호는 그의 책 「성경통독과 통통 신학」에서 통(通)성경의 신학적 기반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통성경은 66권 전체를 파편화(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 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소리 내서 읽는 것이다”<sup>13</sup>

또한 시간 공간 인간을 통(通)으로, 개인 가정 나라를 통(通)으로, 제사장 나라 5대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무시하고, 부분으로만 읽는다면 전체를 볼 수 없다.

### 2) 통(通)이란?

처음으로 통(通)을 주창한 조병호는 그의 책 『통이다 렛츠통』을 통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의 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전세계를 크게 본다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양과 유럽과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서양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음식, 문화, 사상 등 모든 면에 있어 차이점이 많다. 음식을 예로 든다면 동양 요리는 손맛을 중심으로 한 어울림이 특징이라면, 서양 요리는 레시피를 중심으로 한

<sup>13</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17.

개별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언어에 있어서도 서양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한 정확성을 말한다면, 동양은 이해와 용서가 녹아 있는 관계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옹고 그림의 문제를 넘어 서로 존중할 만한 매력들이 있다. 음악에 있어서도 서양은 절대음을 기반으로 한다면, 동양은 구전을 통한 도제(an apprentice)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직관음에 따른다. 차이는 있지만 예술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요즘은 동서양의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사례도 빈번히 있다.<sup>14</sup>

조병호는 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하며 차이점과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그 차이점과 특징을 어떻게 더 극대화할지를 말한다.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산다. 서양은 문화적 토대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계약 중심의 횡적 사회이고, 동양은 공동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 중심의 종적 사회다. 어느 쪽이 좋다가 아니라 서로 상보(相補)적 관계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서양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존중과 수용의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이다. 동양과 서양이 통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sup>15</sup>

이에 대해 조병호는 통(通)을 통해서 거시적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동양의 관계 정신과 서양의 계약 정신, 어느 한쪽의 일방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관계와 계약의 정신이 통(通)했을 때, 동양과 서양이 동반자로 섰을 때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고 보다 더 아름답고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는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균형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는 양측이 중간적 입장에서 수렴되어 동일화되는 것과는 다르다. 각각이 가진 장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장점은 살려나가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상대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을 취해 자기 발전을 꾀해야 하는 것이다.

동양과 서양이 각자 가진 장점, 그리고 한계를 각각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줄 상대의 장점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보다 밝은 21세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이 본연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지구촌 사회가 만들어지는 데에 튼튼한 징검다리가 놓이게 될 것이다”<sup>16</sup>

<sup>14</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17-30.

<sup>15</sup> Ibid., 39-45.

<sup>16</sup> Ibid., 50-51.

이에 2006년 6월 조병호는 주일예배에서 ‘탕(湯)과 통(通)’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2006년 12월 차이나네트워크연구소(CNI) 1주년 기념 포럼에서 ‘통(通, Tong)’ 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sup>17</sup> 통(通)을 통한 동서양의 장점과 한계를 뛰어넘는 통(通)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이것은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를 꿰뚫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중요성과 가치는 인정받을 만하다.

### 3) 통(通)의 개념

학문에 있어서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통(通)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동사이다.

‘통(通)하다’ : 통(通)-하다 「동사」 ‘막힘이 없이 들고 나다. 말이나 문장 따위의 논리가 이상하지 아니하고 의미의 흐름이 적절하게 이어져 나가다. 어떤 곳에 무엇이 지나가다. 어떤 방면에 능하고 잘 알다. 어떤 행위가 받아들여지다. 어떠한 자격이나 이름으로 알려지거나 불리다. 내적으로 관계가 있어 연계되다. 어떤 곳으로 이어지다. 마음 또는 의사나 말 따위가 다른 사람과 소통되다. 전화 따위가 이어지다. 어떤 길이나 공간 따위를 거쳐서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나 물체를 매개로 하거나 중개하게 하다. 일정한 공간이나 기간에 걸치다. 어떤 과정이나 경험을 거치다. 어떤 관계를 맺다. 인사나 말을 건네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8</sup>

<sup>17</sup>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자료집, 2007), 23.

<sup>18</sup>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통하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D%86%B5+%ED%95%98%EB%8B%A4#view\\_left\\_top\\_id](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D%86%B5+%ED%95%98%EB%8B%A4#view_left_top_id) [2023. 3.10. 최종 접속]

통(通)하다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별적인 개체보다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통(通)이 동사로 사용될 때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사물, 그림, 음악, 추상적인 대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통(通)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의 통(通)하다는 말은 그 주체(the subject)뿐만 아니라, 총체(the whole)적 대상들을 꿰뚫는 의미를 발견했음을 뜻한다.<sup>19</sup>

우리가 그림을 본다고 생각해보자.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 그림을 평가할 수 있을까? 부분에 함몰되어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전체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막힘없이 알아보고, 본질을 파악하며, 시종(the beginning and the end)을 꿰뚫어 보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잡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병호는 “통(通)은 철학의 한 분야인 인식론의 한 틀로서,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방식이 조화를 이루어 사물을 인식하는 총체적인 방법이다” 고 한다. 또한 그는 “동서양의 사고방식을 아우른 ‘통(通)으로 본다’ 는 개념은 다수의 대상일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때에는 단수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조금 더 심화 발전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고 했다.<sup>20</sup>

조병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으로 본다’ 의 의미를 서양의 분석적인 사고와 동양의 전체적인 사고를 유기체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sup>21</sup> 서양은 대체적으로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 부분에 집중해서 주도면밀 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동양은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떤 대상이

<sup>19</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55-58.

<sup>20</sup> Ibid., 61-66.

<sup>21</sup> Ibid., 64.

전체적인 상황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사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조병호는 이러한 동서양의 독특한 방식을 하나로 함께 묶어 ‘통(通)’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사고를 통합하는 방식은 조병호가 최초로 시도한 주장이며, 통(通)을 이해하는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通)’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서양적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동양적이다. 그런데 조병호는 동양적인 사고의 보편성을 뛰어넘어, 동양과 서양적 사고의 특징과 장점을 균형있게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인 ‘통(通)’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글자의 모습은 똑같지만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의 의미는 동양적 사고의 패러다임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해왔던 것과는 달리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통(通)의 의미를 새롭게 재발견하고 재해석 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5월 서구의 대표적 철학자 폴 구치 캐나다 빅토리아대 총장과 '통(通) 신학자' 조병호 박사, 지저스 링크 글로벌 대표 김영래 박사가 '성경을 통한 동·서 대화'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성경을 통해 동서양의 학자들이 대화를 하며,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고 하는 자체가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개인주의, 과학주의에 입각한 서구식 성경 읽기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삶을 통해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은 서구·비서구로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동·서 방식을 융합하고 성경을 보다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읽어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해결책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답을 결국 성령의 조명하에 성경으로 충분히 문제를 극복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 학자의 대담 내용을 통해 성경을 통한 동서양의 화합과 일치가 가능한지 살펴보자. 이하 내용은

세 학자의 대답 내용이다.

-성경을 통해 동·서 대화가 가능한가?

△ 폴 구치 = 그렇다. 서구는 오랫동안 학문적 자유를 중시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크리스천의 삶, 믿음의 고백은 등한시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려다 원래 의도를 크게 왜곡시켰다. 번영의 신학, 성공의 복음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같이 과편화된 복음이 서구 기독교의 쇠퇴를 가져왔다.

△ 조병호 = 그동안 서양은 개체 분석과 정의(定意), 동양은 개체의 위치와 쓰임새에 치중해왔다. 동서의 성경 읽기 차이와 한계를 인정하고 상호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증거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 김영래 = 정경화 과정에서 히브리 전통에 따라 성경 암송과 절대성이 강조됐다. 중세에는 교리의 근간으로서 성경이 활용됐다. 종교개혁 이후 성경은 이념과 해석, 적용의 대상이 됐다. 마치 마술상자처럼 아무 때나 꺼내 사안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됐다. 지금은 성경을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는 통독이 강조되고 있다.

△ 폴 구치 = 성경은 서구의 텍스트(text)가 아니다. 성경은 중동에서 태어났다. 신약성경은 주로 유대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의 컨텍스트(context·상황)로부터 다른 컨텍스트로 변형됐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다. 복음서는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 문화로 번역, 하나님의 뜻과 법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 조병호 = 개념부터 바뀌어야 한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 둘째, 성경은 크게 소리내어 읽을 가치가 있다. 셋째, 성경은 1년에 열 번은 통독할 가치가 있다. 넷째, 성경은 동과 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책이다. 다섯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 성경은 동서남북 모든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때문에 부분이 아닌 전체,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 폴 구치 = 동의한다. 성경에서 지식을 찾으려는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성경을 머리와 가슴으로, 이성과 영성으로 읽어야 한다.

△ 김영래 = 성경 읽기가 신앙의 이유, 믿음의 근거가 돼야 한다. 또 선교와 전도, 나눔을 통해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 기독교인이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그물(Net·말씀)'을 던지고 적극적으로 '사역(삶과 행동의 일치)'을 해야 한다(Work). 그럴 때 진정한 '네트-워크(Net-Work)'가 형성된다.<sup>22</sup>

<sup>22</sup> 좌담: 성경을 통한 동·서 대화 『서구식 성경 읽기만으론 주의 뜻 이해 못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1278832> [2023. 3. 18. 최종 접속]

조병호가 재발견하고 만들어낸 통(通)은 대상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그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시대에 가장 큰 거대담론이라 할 수 있는 동양과 서양의 방식까지 하나로 묶어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인 그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조병호는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의 본질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들까지 모든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식의 틀로 통(通)을 정의한 것이다. 그것을 성경 읽기와 이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성경을 보았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성경을 한권의 이야기로 보는 것에는 약하다고 본다.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전체를 놓치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그것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칠 수밖에 없다.

#### 4) 통(通)의 방법론

통(通)을 어떠한 대상의 인식으로서뿐만 아니라 본질까지도 꿰뚫어 보는 총체적 인식의 틀로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겠다.

조병호는 그의 책 『통이다 렛츠통』에서

통이란, 대상의 속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어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성, 지식과 실천, 부분과 전체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봄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sup>23</sup>

<sup>23</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85.



이라 말한다. 부분을 뛰어 넘어 총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성경 읽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깊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올바른 이해가 선행될 때 올바른 삶이 가능하다.

통(通)으로 볼 때 자아의 이기성을 벗고 조화와 균형이 가능하고, 자국과 타국을 통(通)으로 볼 때 국수주의를 벗어나 타국과의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문화에 있어서도 통(通)으로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를 벗어나 타문화, 타국, 타인과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이해와 배려를 기반으로 존중과 배움의 길이 열린다. 통(通)은 그 자체로서 방법론이고, 가치를 포괄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과거 역사 속에서 종교와 예술, 문화와 사회가 서로 통했다면, 그동안은 나누고 분리시키는 길을 걷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 분화(differentiation)를 통한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분화의 끝은 편협(intolerance)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각 영역의 대가들은 자신의 영역 속에서 소통으로 다른 세계를 존중하고 관계를 맺으며 지지와 동의를 받고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 살 수 없고, 인식과 소통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의 인식 방법, 타자와의 소통 방식은 중요하다. 그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통(通)은 조화와 균형을 통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구체적인 통(通)의 사고 방법이 무엇인가? 통(通)은 부분의 합을 뛰어 넘는 전체로서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21세기에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창조적인 사고와 발전적인 방법은 ‘차이’와 ‘다름’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는 차이 속에서 나오는 확일성을 넘어 상보(相補)적인 역할 수행자로 다르게 생각하는 동역자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발전과 시너지(synergy)는 차이보다 다름 속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성된다. 다른 두 개체가 만나 통(通)으로 이해할 때, 빛을 발한다.<sup>24</sup>

<sup>24</sup> Ibid., 85-89.

통(通)의 구체적인 실제 인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조병호는 통(通)의 방법론을 5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는 뿔레야 뿔 수 없다. 부분이 없는 전체는 있을 수 없다. 부분을 안다고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다. 성경을 예로 든다면 이사야 한 권을 안다고 구약 전체를 알 수 없고, 성경 66권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다. 성경 66권을 읽었다고 해서 각 권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전체와 부분을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통(通)의 인식으로 본질을 파악하며, 전체 속에서의 유기적 결합을 함께 인식하고, 동시에 고려해야 할 각각의 대상인 것이다.

두번째 방법론은 ‘분리된 개체 속에 부여할 수 있는 공통특성을 찾는 것’이다. 조병호는 “분리된 개체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일컬어지는 파편화된 존재 양식이고, 이미 서로의 다름을 전제한다”고 말했다. 통(通)은 각 개체의 이데올로기적 공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개체를 담을 수 있는 본질적 가치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또한 통(通)은 공존, 극복, 다양성과 조화로 이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기준음이 다양성을 저해하기보다, 다양성을 극대화하여 가치를 높이는 것과 같다.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간다면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 방법론은 ‘극단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것’이다. 서양의 논리가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면, 동양의 논리는 ‘이것도 저것도 둘 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극과 극을 서로 통(通)한다는 관점에서는 21세기에 동양적 발상이 가깝고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국가든, 어느 사회 영역이든, 진보와 보수가 있는데, 이 양자는 상호 배타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 통(通)의 생각으로 대화를 시도한다면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낸다면, 새로운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 방법론은 ‘하나의 현상에 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이렇게 차원을 정의한다.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입체, 4차원은 초입방체(공간3 + 시간1)라고 한다. 꽃 한 송이를 두고도 물리적 인식과 관념적 인식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온다. 모더니즘의 특징을 획일성이라고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다양한 인식을 그 자체로 인정하기에 더 발전된 듯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꽃 한 송이 각각의 부분적 인식 결과의 의미를 강조한 나머지, 꽃 한 송이의 존재를 잊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각각의 부분도 그 자체로 가치 있으나,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확실한 실체를 접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通)으로 봐야 한다.

다섯번째 방법론은 ‘Text와 Context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본질적 요소이지만, 그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에 따라 달리 인식될 수도 있다. 모더니즘적 사고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 매여 있으면 결국 본질적인 현상에 접근하기는 어려워진다.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텍스트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결국 균형 잡힌 사고는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서로 통(通)하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하다.<sup>25</sup>

조병호의 통(通)의 구체적 인식방법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장단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통(通)의 방법으로 전체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통(通)으로 볼 때 가능하다.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이 부분을 놓친다면 파편화된 읽기로 인하여 중요한 하나님 마음 읽기는 실패할 수 있다. 성경 한권 한권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유기적 관계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치우치거나 틀릴 수밖에 없다.

##### 5) 20세기 한국 교회와 통(通)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파를 가지고 있다. 그로인해 파생되어진 문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통의 방법론으로 20세기 한국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조병호는 그의 책 『한국기독교청년 학생운동 100년사 산책』에서 기독교청년들이 어떻게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대별로 구별하였고,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

<sup>25</sup> Ibid., 89-99.

연도	시 기
1884-1954	계승과 도전의 시기
1945-1960	분열과 대동의 시기
1960-1987	민주화와 복음화운동의 시기
1987- 현재	통일연합과 해외선교운동의 시기

〈 표 1 - 한국기독교청년 학생운동의 네 시기 〉<sup>26</sup>

유럽에는 교회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기독교가 남긴 유산이 있다면 삶 속에 녹아진 복음이다. 그들은 교회는 없지만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 곳곳에 퍼져 있는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19세기 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선교, 교육, 의료에 미치기까지 각 영역에서 미국의 보수주의적 신앙을 그대로 한국교회에 전했다. 덕분에 한국 기독교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19년 3·1 독립운동이다. 그 당시 복음화율이 3% 정도였지만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다.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는 선교사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었다는 증거이다.<sup>27</sup>

위 표에서 보다시피 복음이 시대와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 다양하게 변화하며 실제적 영향을 끼침으로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내었다. 교회는 시대적 아픔 가운데서 잠잠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반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여 분열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sup>26</sup> 조병호, 『한국기독교청년 학생운동 100년사 산책』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5). 8-11. 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을 참고하기 바란다.

<sup>27</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149-151.

이루었다.

120여 년 동안 한국 근현대사를 견인해 온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후를 통해 한국을 본다면 복음이 끼친 영향력은 참으로 놀랍다. 중요한 시기와 변화의 중심에는 늘 기독교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의 진지한 고민과 참여를 통해 역사의 줄기를 바꾸는 사건들이 많았다. 조선말기와 일제 강점기, 분열과 태동의 시기에 기독교학생들은 확실한 변화의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였다. 진보와 보수 이러한 이념적 갈등 속에서 엇갈리는 결과가 있지만 분명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 존중이 필요하다.

진보 진영의 학생운동이 사회참여를 이끌었다면, 보수 진영의 학생운동은 민족복음화를 이끌었다. 분단국가에서 정치인들은 늘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두 진영의 학생들을 이용하였다. 그러다보니 말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진보진영은 아모스 미가 같은 선지서를 통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갔고, 자신들의 수단을 위한 근거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다. 보수진영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민족복음화만 외쳤고, 사회적 외침에 대해 귀를 닫고 아픔을 애써 외면하였다. 연합과 일치, 균형과 조화가 서로에게 필요했다. 복음은 신인관계 (man and God relations)와 대인관계 (personal relations)에 있어서 분명한 조화와 균형을 이야기한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성경을 통(通)으로 읽지 않고 부분으로 읽을 때의 위험성을 볼 수 있다. 역사를 통해 바른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 6) 통(通)으로 성경 읽기

위에서 20세기 한국교회 시기별로 복음이 어떻게 변화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파편화된 성경읽기만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만을 갖다 쓴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

조병호는 진영의 논리에 갖혀버린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법론으로 성경통독을 소개하고 있다.

군부독재라는 사회적 배경 위에 서게 된 한국 기독교가 시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의 차이에 의해 성경의 읽기 범위와 이해의 방향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성경의 부분을 보는 습관으로 굳어져 왔다.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으로 성경통독을 소개하는 바이다.”<sup>28</sup>

통(通)의 단어적 의미는 살펴보았지만 성경과 통(通)을 어떻게 통(通)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한 권이지만 66권이다. 각권마다 저자와 연대,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등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시간, 인물, 장소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이다. 하나의 이야기라는 말은 결국 통(通)한다는 말이다. 십자가와 예수로 통(通)한다.

성경을 우리는 읽는다고 한다. 통독(通讀)은 통(通)의 방법으로 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권별주의에 빠지면 전체 66권을 통한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성경을 통(通)으로 읽는다는 것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꿰뚫어 보고 안다는 의미이다.<sup>29</sup> 66권을 통(通)으로 볼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잘못된 성경 읽기의 예를 한번 보겠다.

<sup>28</sup> Ibid., 161.

<sup>29</sup> Ibid., 61.

「뉴요커」New Yorker에 실린 한 만화는 어느 대형 서점 안내소에서 뭔가를 문의하는 사람을 보여 준다. 직원은 자판을 두드린 뒤 컴퓨터 화면을 골똘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한다. 성경을 찾으신단말이죠? 음...그건 자기계발서 코너에 있을 거예요.

이 만화가 암시하듯, 포스트모던 문화에서는 성경이 명확한 위치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다원주의 세속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이 성경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속 시원히 알기가 힘들다. 이런 시민들은 성경에 어떤 관심을 기울인다 해도, 성경을 소비재 가운데 하나요 뿌리도 잃어버린 채 그저 끝없는 자기창조와 자기발전에만 몰두하는 자아에게 필요한 또 다른 치료제로 여긴다. 당연히 이런 접근법으로는 만족스럽게 성경을 읽어내지 못한다. 성경은 자기계발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부서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행위를 다루기 때문이다.”<sup>30</sup>

성경읽기를 단지 자기창조와 자기발전을 위한 자기계발서 정도로 생각하고 읽는다면 자아에게 필요한 또 다른 치료제가 될 뿐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에 확정한 자신의 뜻과 마음을 위한 도구로 전략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구절과 문맥을 찾아서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경에 의해 임혀져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것을 거부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읽기에서 끝난다. 그러니 그것은 자기계발서와 치료제밖에 될 수 없다. 생명의 말씀으로서 바른 성경읽기를 한다면 그 결과는 순종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읽기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래는 기독교 교육의 출발과 완성을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sup>30</sup> 리처드 헤이스, 엘렌 데이비스,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 박규태 역(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21), 11.

적절한 성경학습의 방법으로 인식론적 관점에서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성경을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방법과 둘째는 경험의 대상으로 보는 방법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침으로 이해와 경험의 지평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야기를 통해 이해와 경험을 융합시키는 교육적 시도가 있었다.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며,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도, 세상과 세상의 모든 실재를 포괄하고 종합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부분에 집중하면 전체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는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볼 때 가능하다.

문자 이전에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의 본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성경을 이야기로 소리내서 읽고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에 내재(內在)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야기의 중요성과 가치가, 신앙의 이야기가 사라져가는 이시대의 문화 속에 새롭게 꽃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sup>31</sup>

### 시간 · 공간 · 인간을 통(通)으로

성경에는 2,000년의 시간, 1,500여 곳의 공간, 5,000여 명의 인간이 공존하고 있고, 그것들을 부분이 아닌 반드시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3대 명절(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은 성경 속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행해지는 장소, 시간, 인간이 함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파편화 해서 본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 공간, 그 시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것이

<sup>31</sup>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교수학습에서의 이야기의 재발견,” (신학과세계, 제75호, 2012), 311-333.



통(通)성경이다<sup>32</sup>. 성경은 역사다. 그러기에 시간을 가지고 있고,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이 있다. 이것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오해하고, 틀리게, 그 본의를 놓칠 수밖에 없다. 그 시대의 시간 · 공간 · 인간을 충분히 공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 뜻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

###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通)으로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통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모세가 갈대상자를 타게 된 이유는 먼저 부모가 태웠던 것이고, 부모가 모세를 태웠던 이유는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애굽이 제국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표면적 이유는 애굽의 박해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선교의 꿈인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의 개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이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정책으로 호적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갔지만(눅2:1-12), 미가선지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 통으로 봐야한다(미5:2).<sup>33</sup>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읽기가 하나의 관점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이 봐야 전체가 보이고, 이해가 가능해진다.

<sup>32</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18-19.

<sup>33</sup> Ibid., 20-21.

## 제사장 나라 · 5대 제국 ·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제사장 나라는 제사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뤄지는 나라이다. 제국은 다른 나라를 종으로 두어 자신들의 야망을 키워가는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이다. 모리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나라 법을 주시고,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셨다(출19:5-6).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제사장 나라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삿2:10).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제사장 나라 교육의 실패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마지막 히브리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다(신1:5).

그중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6:6-9)

마음에 어떻게 새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것을 말한다. 반복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사사기에서 다른 세대의 등장은 바로 이 교육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삶도 버린 히브리 민족을 레위기 26장에서 약속하신 3단계 징계 가운데 1단계 흉년, 2단계 수탈 징계로 교훈하셨다. 그 가운데서도 진행된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세계선교의 꿈을 말씀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대한 꿈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을 5대 제국을 통하여 일하셨다. 예를들면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려면 바벨론 제국을, 느헤미야를 이해하려면 페르시아 제국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2절의 헬라 제국을 알아야한다. 중간사 400년은 페르시아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들의 변동이 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제국이 등장한다. 헬라제국의 프톨레미 왕조 때에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B.C167년 10월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위해 제단과 우상을 세우고 돼지를 희생 제물로 사용해 돼지 피로 성전을 모독했다. 이에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디아가 혁명을 일으켰고, B.C 167년부터 B.C 164년까지 3년에 걸친 박해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는데 이날이 바로 수전절(하누카)로 지켰다.<sup>34</sup> 80여 년 동안 하스몬 왕조(마카비 가문)가 왕이 대제장을 겸직하면서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유대는 또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수전절을 십자가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도 존중하고 지키셨다.<sup>35</sup> 예수님께서서는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십자가 단번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셨다.

구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이고, 신약은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경영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계경영을 위해 5대 제국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통(通)성경은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sup>34</sup>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 통독원, 2012). 109-124.

<sup>35</sup> 조병호, 『통(通) 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20). 87.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sup>36</sup>

그렇게 봐야 이야기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지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비로소 살아나게 된다. 단절을 넘어 연결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 성경 전체를 통(通)으로

조병호는 40년 넘는 세월 속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10분에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앙 부흥 운동과 교회 부흥 운동을 꿈꾸고 있다. 그 10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sup>37</sup> 전문은 부록 2를 참고바란다.

이 10분 스토리가 한글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번역되어 세계화를 위해 전파되고 있다. 읽고 외울 때마다 성경 한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설 수 있게 된다. 10분 스토리는 성경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와도 같다. 이 시대에 잘못된 성경 해석과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본다.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에 이 10분에 성경 전체 이야기가 주는 감동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외워서 성경을 더 사랑하고, 알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sup>36</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23.

<sup>37</sup> 조병호, 『성경 통(通)독 통(通)구구단』 (서울: 통독원, 2023). 113-116. 부록 2 참고.

## 7) 성경통독이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통독이란 무엇인가? 조병호는 그의 책 『성경통독과 통통신학』에서 이것에 대한 신학적 체계를 갖추었다. 깊은 통찰과 구조적 탄탄함을 볼 수 있다. 그는 성경통독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읽을 것을 주장했다.

첫째, 성경통독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가지 든다면 설계일 것이다.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하고, 이후에 터를 닦고, 골조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나머지 인테리어까지 마치게 된다. 모든 것은 설계를 따라 시행되어 진다. 감리는 설계도와 똑같이 시행이 되는지를 관리 감독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이 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부분적인 권이나, 장이나, 절만으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은 살아 있는 시간과 공간,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이다. 제대로 된 성경 읽기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사건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의 관계와 영향력과 의미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통독이다. 성경통독은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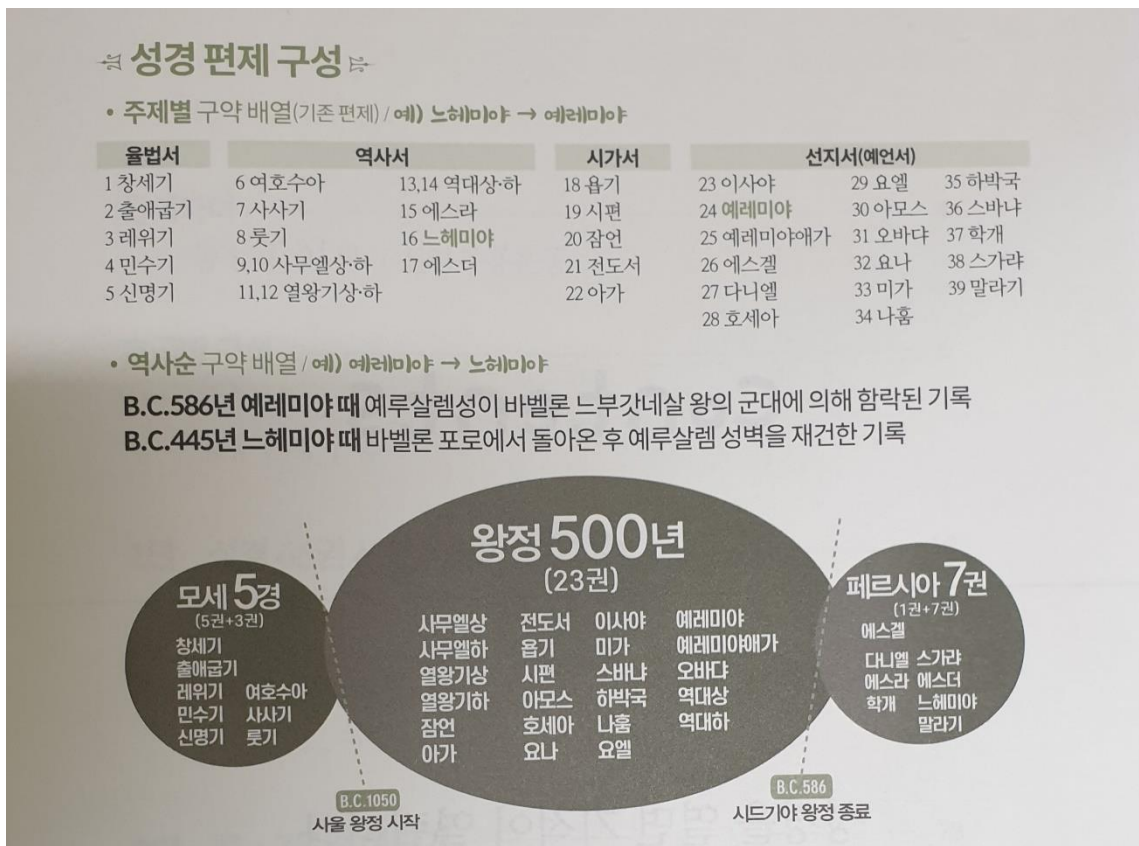
통독(通讀)은 동양의 배움과 지식연구를 위해 전체를 통(通)으로 반복적으로 읽어 마침내 직관(直觀)에 이르는 방법이다. 한 구절, 한 장,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있다. 성경 전체를 통독(通讀)함으로 성경에 대한 직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에는 인간, 문학, 역사, 철학, 무수한 사건들, 삶과 죽음, 나눔과 실천, 전쟁과 승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제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부분만 본다면 놀라운 풍요로움을 놓치는 것이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하나의 이야기(One-story)로 통독(通讀)한다면 독자(讀者)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sup>38</sup>

<sup>38</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39-42.

둘째,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이다.

현재 성경의 편제는 장르별로 되어 있다.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묶여져 있다. 이 순서를 따라 읽어나간다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가 어렵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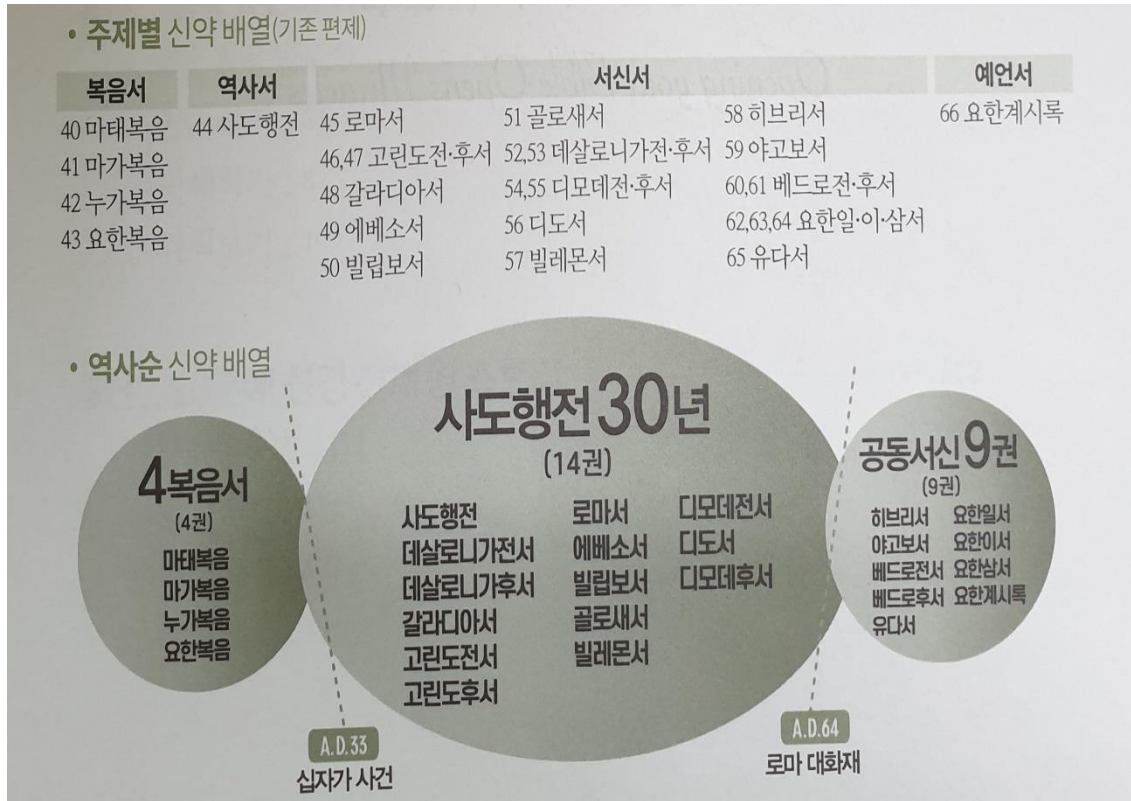
성경 편제 구성을 조병호는 그림 1 <성경 편제 구성 - 구약>과 그림 2 <성경 편제 구성 - 신약>과 같이 구성하였다.<sup>40</sup>



< 그림 1 - 성경 편제 구성 : 구약 >

<sup>39</sup> Ibid., 42-45.

<sup>40</sup> 조병호, 『성경 통(通)독 통(通)구구단』 (서울: 통독원, 2023). 7.



< 그림 2 - 성경 편제 구성 : 신약 >

그림 1 <성경 편제 구성 - 구약>에서 보듯이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를 예로 들어보겠다. 기존편제는 16 느헤미야 한참 후에 24 예레미야가 나온다. 예레미야는 B.C. 650-B.C. 580년경 활동했고,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B.C.464-424) 때에 예루살렘 총독(B.C.445-425)으로 52일만에 성벽을 재건하여 제사장나라 재건을 이룬 인물이다. B.C. 586년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B.C.445년 느헤미야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열심히만 읽는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먼저 읽은 후 느헤미야를 읽는다면 역사의 진행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이다. 역사순 성경 읽기의 장점은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때 그 현장의 생동감을 오늘 나의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통독하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구원역사를 알게 된다. 또한 성경 기록자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움으로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된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잘 모른다면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통독은 성경 이야기에 관한 많은 내용을 정돈한 읽기 방식이다. 그 방식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순서대로 배열했다는 것이다. 성경 이야기의 기초를 잘 다져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성경통독의 읽기 방법은 성경 이야기의 시간 흐름의 기초, 공간 흐름의 기초, 사람들 이야기의 기초, 사건의 관계와 의미에 관한 기초를 잘 정돈하였다. 이 기초 위에서 부지런히 끝까지 꿰뚫어 살핀다면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셋째, 성경통독은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sup>41</sup>

성경통독의 목적이 단지 성경을 더 많이 알기위한 지적 성장이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된다. 성경통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구이자, 실천의 땀을 흘리는 순종의 장(場)으로 나아가는 출구여야 한다. 순종의 장(場)에서 받음직한 섬김을 이루어내는 실천은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다. 그 실천의 장에서 살아 있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sup>42</sup>

조병호는 성경통독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20마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림 3 <통(通) 성경 노래>와 같이 20마당의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sup>41</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45.

<sup>42</sup>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4), 643.



또한 통(通)성경 세계화를위해 영어로도 만들어 놓았다. 노래를 부르며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틀리지 않게, 오래 간직할 수 있다.

필자도 청년들과 통(通)성경을 배우기 전에 다 같이 부르고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외워서 잘 부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재미있게, 틀리지 않게, 연결해서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조병호의 노력과 수고에 큰 감동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배우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영성 깊게 알아 갔으면 한다.




# The Song of TongBible

## 통(通)성경 노래

Lyrics Byoungho Zoh(작사 조병호)  
Composition Tong Orchestra(작곡 통오케스트라)

『성경통독』 20마당의 제목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God ex - pre - sses his heart Dream for all na - tions Manna gene - ra - tion Suc - ce - ssion of - faith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Model for a thousand years Mind and - wis - dom Line of love line of mi - ssion  
천 년 모 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삼상, 삼하, 왕상 1~2장 왕상 3~11장, 잠, 아, 전, 음, 시 왕상 12~22장, 왕하 1~20장, 암, 호, 은, 사, 미

Hope - stan - ding be - fore des - pair Punishment a ste - pping - stone of hope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희망의 디딤돌

왕하 2~25장, 습, 합, 나, 율, 렘, 예, 음, 대상, 대하 에스겔, 다니엘

A co - muni - ty of re - cons - truc - tion A blank page - full of his - to - ry A  
재건 공동체 어떨게와이렇게사이

스, 학, 숙, 예, 느, 말 신구약 중간사

joy - ful - bir - th Love for - one - soul Pa - ssion to - wards for give - ness  
기쁨위한탄생 한영혼사랑 응서를향한열정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In - vi - ta - tion to glo - ry and pea - ce The dis - ci - ple e - ra  
영광과평화로의초대 열리는제자시대

요한복음 사도행전 1~12장

Extension of the gos - pel with no - boun - da - ries E - ter - nal - crown and - han - ded - down re - quest  
경계를넘어선복음의확장 준비된면류관남겨진부탁

행 13~19장, 살전, 살후, 갈, 고전, 고후 행 20~28장, 롬, 열, 빌, 골, 몬, 딤후, 딤후

Le - tters for the - righ - teous fight and Song of vic - to - ry - pre - re - ceived  
선한싸움을위한편지 미리받은승리의노래

히, 약, 벧전, 벧후, 유 요일, 요이, 요삼, 계

< 그림 3 - 통(通) 성경 노래 >

지금까지 성경은, 서구식 연구 방법을 따라 구와 절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했다. 그러다보니 성경 66권을 통(通)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놓치고 있었다.<sup>43</sup>

조병호는 창세기 1-2장을 통해 사랑의 눈길과 무척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 한다. 또 인생들과 동역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인생들을 아끼시고, 복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창 3-5장에는 죄를 지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용서하시는 마음과 가인의 아벨 살인을 인해 한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 한탄은 죄 지은 악한 인간이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창6-9장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깨달은 노아는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땀으로 흘려냅니다. 홍수 심판은 쉼 새 없이 쏟아져 온 세상을 뒤덮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노아의 믿음과 순종의 땀 흘림은 속상하신 하나님 마음을 끌어내린 새로운 출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조병호는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마음을 읽고 담아내었습니다.<sup>44</sup>

성경을 통(通)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 기대와 실망, 설득과 참아주심 등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며, 심판 속에서도 그분의 눈물을 보게 된다.<sup>45</sup> 필자도 20마당의 하나님 마음을 통해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sup>43</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122.

<sup>44</sup>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4), 16-22.

<sup>45</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125.

## 8) 통통신학이란?

신학은 바른 사상과 생각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 되어야 한다. 이일에 대해 조병호는 그의 책 『성경통독과 통통신학』을 통해 신학적 체계를 세웠다.

통(通)신학의 시작에 대해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994년부터 조병호가 주창해 온 ‘통(通) 신학’은 의외로 간단하다. 성경 66권을 서구의 나무를 보는 분석적인 사고보다 숲을 보는 동양의 전체적인 사고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덩어리째 보자는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등 5000여명의 등장인물을 시간, 공간, 인간사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묶은 게 5년 전까지만 해도 원역사, 만나세대, 미스바세대, 재건공동체, 신구약 중간사, 제자시대 등 20개 시대였다. 그런 통신학은 5년 만에 다시 십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 성경줄기, 기도, 전도, 역사순 통독이라는 7개 사이클로 업그레이드됐다.

과거엔 단순히 연대기준에 따른 세로축의 역사순 통독이었다면 이번엔 성막·성전의 관점에서 본 성경, 성경을 바라보는 영적 관점, 제사장 나라라는 관점에서 본 성경, 성경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 주요인물의 기도, 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유대인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성경적 근거), 세계사(성경과 5대 제국)라는 살이 가로축에 붙었다. 한마디로 폭이 넓어진 것이다.

조 원장은 “성경 66권은 십자가라는 원스토리(one-story)인데, 천지창조부터 요한이 밧모섬에 가는 이야기까지 성경을 굵은 줄기로 봐야 한다”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 속 인물처럼 기도가 깊어지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세계경영,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sup>46</sup>

<sup>46</sup> 조병호 성경통독 원장, 『성경 66권을 덩어리째 읽어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4694> [2023. 6. 7. 최종 접속]

통(通)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통(通)신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리 되어 왔고, 발전해 왔는지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서 통신학이라는 체계를 완성하였다. 100 여권의 저자이기도 한 조병호는 지금도 책 집필과 세미나에 진력(endavor)하고 있다. 조병호는 통(通)성경의 세계화를 위해 통(通)신학을 완성했다.

2007년 5월 22일에 잠실체육관에서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미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주강사로 참여해 ‘통(通)신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1만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 컨퍼런스에서 동양과 서양교회의 협력과 동반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교회성장의 모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교회부흥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sup>47</sup>

또한 조병호는 2017년 11월 독일 비텐베르크 캐슬처치에서 개최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비텐베르크대회’에서 ‘모든 성경, 모든 민족, 모든 가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신앙 전수의 중요성이었다. 그는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모든 성경을 5세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500년 전 종교개혁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sup>48</sup>

조병호는 통(通)신학을 ‘통(通)’과 ‘통(通)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해석의 방법론으로 정의하고 있다.<sup>49</sup>

<sup>47</sup> 『우리 모두 '통'합시다, Let's Tong』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3674153444> [2023. 6. 10. 최종 접속]

<sup>48</sup> 『통독, 성경의 핵심을 후손에 전승하는 지름길』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4686> [2023. 6. 11. 최종접속]

<sup>49</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통독원, 2008). 72.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그의 책 『성경통독과 통통신학』을 통해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방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통(通)신학은 상보성, 유기성, 계열성의 관점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진리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다. 서구의 분석적이고, 부분적인 경전읽기 방식과 동양의 전체적인 성경읽기 방식을 어우러냈고, 통시(通時)적·공시(共時)적 성경읽기가 통(通)으로 묶여있다. 또한 경전 중심의 성경읽기 방식과 서양의 이성적 읽기 방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심정 중심의 성경읽기 방식이 상보(相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전체적 사고’와 ‘부분적 사고’, ‘통합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조화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양립하는 두 영역을 서로 틀리게 보지 않고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여는 것이다. 통(通)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써, 본질을 파악하고, 유기적으로 보며, 서로 다른 방법에서 얻어진 결론이라 할지라도 균형적 입장을 견지한다.<sup>50</sup>

조병호는 통(通)신학적 성경읽기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통(通)하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通)하다’를 소망하고 있다. 성경을 통(通)으로 보지 못하면 결국 성경을 도구화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성경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진리와 뜻은 관심없다보니 분열과 분리가 일어났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이 통(通)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통(通)신학은 21세기 세계화 시대 동서양의 이념, 정치, 문화, 경제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바탕으로 공존과 평화를 꿈꾸며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통(通)신학은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수렴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며, 성경통독을 기반위에 부분이 아닌 전체, 역사 순서대로 읽는

<sup>50</sup> Ibid., 74.

것이 필수조건이다. 통(通)신학의 시작은 성경통독을 통해 얻어진 직관이나 다양한 관점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차원으로 뛰어넘어갈 때 가능하다.

## 2. 전도 연구

### 1) 전도의 정의

전도의 사전적 의미는 도(the gospel)를 전하(preach)는 것이다. 말그대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사회 공동체, 단체, 모임등에도 그들의 유지와 지탱을 위해 도가 있다. 그리고 그 도(a moral doctrine)를 전(spread)한다. 예를들면 아팠다가 건강해진 분이 건강을 전할 경우 우리는 건강 전도사(preacher)라고도 한다. 웃음 전도사, 축구 전도사, 달리기 전도사 등 다양하게 한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깨달음과 이치를 전할 때 전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렇게 전도라는 말이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전도라는 말 앞에 복음전도(evangelism)<sup>51</sup>라는 말을 붙여 사용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전도 아닐까한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누군가에게 ‘교회나가세요?’ ,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거나, 들었을 것이다. 오늘날 내가 예수

<sup>51</sup> ‘복음전도’ 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찰스 아담스입니다. 그는 1850년에 자신의 저서 [19세기 중엽의 복음전도]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1888년 아더 T. 피어슨이 쓴 『복음전도 사역의 원리와 실제』라는 책에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하도균,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전도 바이블』 (교양: 소망, 2023), 15. 재인용.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약 4천여 년이 넘는 시간과 공간, 인간을 뛰어넘어 작은 땅 유대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한국 땅에도 전해졌으니 말이다.

창세기 3장,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마귀, 사탄 계12:9; 20:2)의 간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되었고, 그 사명의 해결책으로 원시(原始)복음(창3:15)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롬8:2; 딤후1:10)를 예언하셨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19:30), 요나서의 예언대로 죽은지 삼일만에 부활하시고(마27:53),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주셨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롬1:16,17; 6:23).

그 부활을 보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다(행1:8).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 주님 속히 다시 오신다는 재림 약속을 가지고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 열매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도 맺혀지고 있고, 나타날 것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3년 동안 하신 주된 사역을 보면 이렇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4:23).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사탄에게 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복음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엡2:11-12)들이었다고 말한다.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엡2:13).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엡2:14-16). 죽을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음이라는 죽을 병에 걸렸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곧 복음(the gospel)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사도바울은 아덴에서의 쟁론(행17:16-31)을 인하여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1:18). 세상에 많은 도가 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는 오직 십자가의 도(the gospel) 밖에는 없다.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그것을 전하는 방법을 전도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전1:21). 전하지 않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롬10:13-15)라고 했다. 전도는 구원의 주(one's Lord)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 2) 신약성경에 나타난 전도

신약성경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3:2)고 외쳤고, 얼마 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눅3:23)를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외치셨다(마4:17). 공생애 삼년 동안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셨다. 마침내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양(요1:29)으로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지상최대 위임명령을 전하셨다. 마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 막16:15; 눅24:46-48)고 전하고 있다. 그 전도의 시작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내 증인이 되리라’ (행1:8)라고 하셨다.

###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구약성경을 통해 예언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1:14)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의 출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요1:17).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14:6)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8세기경 남유다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그의 책(사53:1-12)에서 예수님에 대해, 오셔서 하실 일과 죽으심을 예언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린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한 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버림 받고 질고를 아는 자, 멸시당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등으로 묘사한다. 그의 찢림과 상함의 이유를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선언한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리라 한 엘리야(마11:12-14)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4:5,6)는 약속을 성취하였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고 외쳤다. 그는 두 번에 걸쳐 “나도 그를 알지못하였으나” (요1:31,33) 이렇게 말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누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알지 못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요한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1:33)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인줄 알게 되었다.

신약의 마태는 예수의 족보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마1:16). 또한 마태는 예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1:21)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마5:17; 롬13:10; 갈5:14).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제자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기까지 예수를 단지 로마제국의 압제에서 독립시켜 줄 왕으로 인식했다. 십자가 죽음 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한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14:17).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오셨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예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17). 그가 오신 이유는 지극하신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살게 한다.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행5:42, 9:22, 17:3, 18:28). 사도 바울은 전도의 당위성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는 지금도 전도를 통하여 세상의 거리낌과 미련을 깨뜨리고 계신다(고전1:23).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알고 믿게 된다(엡1:17).

##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동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9:13).

로마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11:19). 예수님의 별명을 보면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눅19:1-10)였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막5:1-20)와 사마리아인(요4:1-42), 병든 자(마8:16; 마14:35)와 약한 자들의 친구(요11:11)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동기를 보면 긍휼과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다.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월 맥레이니 주니어의 『개인 전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단번에 그러나 모든 시대를 위한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되찾은 바’ 됐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이다.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일은 구원의 길을 제공한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이름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 하나님의 (모두에게) 열린 초대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다. 그는 생명을 주시는 분,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 죄를 용서하고 부서진 영혼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죄를 용서하고 깨진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sup>52</sup>

<sup>52</sup> Will McRancy Jr. 『개인 전도의 기술: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예수 전하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56-57.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러 오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누가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행4:12).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도하신 동기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엡2:11-22). 그리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요3:16; 롬6:23).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요일3:8).

###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19:10)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에 대하여 정승룡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전도를 우리 인생의 궁극적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가복음1장 38절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전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아셨음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행8:1).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교회가 탄생한다(행11:19-26).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행20:24)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며 마지막 황제재판을 요구하며 재수의 길을 선택하고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다.

둘째, 기도 가운데 전도의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가복음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 하셨음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하실 때가 많았지만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에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通)하셨다. 기도의 시간은 사명 감당을 위한 지혜를 받고,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늘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었고, 기도 속에서 전도와 양육, 사역을 진행하셨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방향이 된다.

셋째, 이미 주어진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가복음1장 39절 후반부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며 전도할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이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다. 누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1:12)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마28:18).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엡1:21).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하면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6:18)고 조언하고 있다.<sup>53</sup>

예수님의 전도방법은 개인, 군중,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까지 최선을 다했음을 볼 수 있다.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때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때로는 거칠게, 온유함으로, 단호하게 사역하셨다. 예수님은 복음의 접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셨고, 질문을 통해 다가가기도 하셨다. 농부에게는 농부에게 맞는 비유로, 어부에게는 어부에게 맞는 비유로,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도 쉽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셨다.

<sup>53</sup> 정승룡, 『예수님의 전도』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504014> [2023. 6. 30. 최종접속]

## 초대 교회들의 전도

초대교회의 전도 이야기는 사도들을 통한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 십자가 죽음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십자가 죽음 후 삼일에 막달라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말하자 베드로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했다(요20:1-10).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20:19).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평강을 전하시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눅24:49).

그 약속은 정한 때, 곧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14:18-20).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요14:2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16:7,8)라는 약속을 주시고, 유월절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십자가 단번제사를 드리셨다.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행1:3).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는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던 제자들과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체험을 하였다. 성령강림 전후로 제자들의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전(before)에는 공회 앞에서 비겁한 도망자였다면, 후(after)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며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행4:12).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했고, 물러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철저히 기록된 말씀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자가 되신다.

조병호는 『통하는 사도행전 30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걸어간 30년간의 행적들을 다룬 책이지만, 산헤드린 공회와의 사활을 건 30년 전쟁사이다. 예수님께서서 ”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1,500년을 유지하던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성전 휘장을 몰래 다시 꿰매고 계속해서 ‘이방인의 딸’ 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키며 ‘종교 퍼포먼스’ 를 이어갔다.

사도행전 30년 동안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제사를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구원은 오직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신성모독자, 성전모독자,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고 부활을 속이는 자’ 라고 주장하며, 예수를 믿는 자와 전파자들을 죽이려 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동참했다. 그러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예수는 주’ 라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산헤드린 공회는 복음전파 방해와 온갖 박해를 통해 전도를 막으려고 했다. 사도바울은 1차, 2차 여행을 통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바울은 암살단을 통해 살해위협까지 받았다.

사도바울은 안디옥 센터를 넘어 땅끝 서바나(스페인)까지 복음의 전진 기지 ‘로마 선교 센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로마 선교 센터’를 세우려고했던 이유는, ‘모든 길은 예수로 통(通)한다’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30년 동안 열렸던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불법의 시대였고, 이에 맞선 사도들의 시대였다.<sup>54</sup>

제사의 무용론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한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그냥 둘 수 없었다.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 상태였다. 돈과 권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맞서던 자들이었다. 예수는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갈수록 더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도들과 그리스도인(행11:26)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거리, 장소, 환경의 위험도 불사했다.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 한국교회에서 활용했던 전도 방법

한국교회는 그동안 전도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전파를 위해 애를 썼다. 시대별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왔다. 크게 나누다면 개인중심의 전도와 교회주도의 전도의 방법들이 있다. 개인중심의 전도는 개인이 복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대인관계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주도의 전도는 교회가 전도의 주체가 되어서 연합적인 전도를 하는 것이다. 개인중심의 전도는 가족이나 직장 등에서 만나는 관계중심적인 전도가 많다. 반면 교회주도의 전도는 교회의 행사나, 초청잔치 등 개인들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단체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 총동원 전도, 축호전도, 노방전도 등이 이에 해당하겠다. 그

<sup>54</sup> 조병호,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서울: 통독원, 2018). 8-10, 220.

외에도 교회들마다 다양한 전도의 방법을 개발하여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 ① 사영리 전도

사영리는 대표적인 학원선교단체로서 1951년 미국 빌브라이트에 의해 시작되었고, 한국에는 1958년 김준곤목사에 의해 소개되었고 국내 대학에서 적극적인 전도를 시작하였다.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학생 단기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사영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영리(四靈理, The Four Spiritual Laws)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네 가지의 원리(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로 된 하나의 전도 방법이다.

첫 번째 원리(신론)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요3:16).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다.

두 번째 원리(인간론)는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롬3:23).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6:23).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 번째 원리(기독교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롬5: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셨다(고전15:3-4).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번째 원리(구원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요1:12; 행16:31).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엡 2:8-9).<sup>55</sup>

이렇게 네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영접을 원하는 자에게 같이 기도를 따라하도록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구원받게 한다. 영접기도가 끝나고 나면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하고 복음제시를 마친다. 간단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장점이다.

## ② 전도폭발

전도 폭발은 미국 플로리다주 코럴릿지 장로교회의 케네디 목사가 전도하면서 얻은 체험으로부터 나온 복음제시훈련 프로그램이다.<sup>56</sup>

이 훈련은 임상훈련을 받은 자들이 훈련자들 앞서 시범을 보이고, 복음제시 전문을 통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방법이다. 1962년에 국제전도폭발본부가 창설되어 초교파적, 국제적인 기독교사역으로 친교, 전도, 제자훈련, 건강한 교회 성장이란 사명 아래 현재 211개국에서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 제일의 관심사’가 되도록 돕고 있는 국제적 단체이다.

한국에는 1983년 10월에 제 1차 국제 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이 영동중앙성결교회(이창규목사사무/ 참가자 38명) 실시되면서부터 소개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325차 임상훈련이 끝났고, 수많은 훈련생들이 훈련을 통해 전도자들로 거듭나고 있다. 전도폭발 훈련은 개 교회 중심 활성화되어 교회에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전도폭발 훈련은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관심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돕고, 복음제시 전문을 암송하므로 전도에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성도가

<sup>55</sup> 『사영리란 무엇인가?』 <https://www.gotquestions.org/korean/Korean-Four-Laws.html> [2023. 7. 5. 최종접속]

<sup>56</sup> 국제전도폭발 한국본부 <http://www.eekorea.org/index.asp> [2023. 7. 6. 최종접속]

성도를 훈련하는 재생산에 탁월한 프로그램이다.

### ③ 총동원 전도

김성천은 총동원 전도의 뿌리를 ‘케니스 슈트라찬(Kenneth Strachan)의 심층전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고, 심층전도의 동기는 빌리 그래함의 대각성전도운동의 맹점을 보완하려고 시도되었다’ 고 했다. 그는 대집회 전도운동이 교회 전체 구성원보다 전도자나 부흥사 한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데에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래서 개교회의 목회자나 평신도들을 동원해 효과적인 전도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훈련하였다.<sup>57</sup>

총동원 전도란 교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전하는 것이다. 총동원전도의 목적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영혼의 구원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교회의 성장이며, 셋째는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이고, 넷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다.<sup>58</sup> 결국, 총동원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총동원 전도는 단순한 복음전도 차원과 개인 구원 차원, 교회 성장적 차원에만 머물면 안 된다. 총동원 전도는 교회가 지상대위임명령(마28:19,20)을 받들어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sup>59</sup> 이것은 교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다. 실제로 나겸일 목사가 시무했던 주안장로교회는 총동원전도를

<sup>57</sup> 김성천, 『총동원전도를 통한 교회의 활성화 방안-인동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신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9), 56.

<sup>58</sup> Ibid., 59-60.

<sup>59</sup> Ibid., 72.

통해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인의 성숙을 이루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단점도 있는데 세상의 물량주의적 전략과 알팍한 상업주의적 방법들이 동원되는 비복음적 모습이 넌크리스천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sup>60</sup>

전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시대에 맞는 전도방법들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전도할 수 없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열정을 다해 찾아 다니셨던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여주시길 바란다.

#### ④ 관계전도

인간사회는 필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고 하셨다. 그래서 여자를 지으시고 함께 살게 하셨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A.D. 1세기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마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1:23)고 전하고 있다. 구약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사건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셨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3:16)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토록 하나님은 자신을

<sup>60</sup> 박인식, 『개혁주의 복음전도와 양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부, 2010), 88.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고,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

우리가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가족, 친지 등이다. 이영훈은 관계전도를 ‘오이코스 전도’ 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 오이코스(oikos)란 가족, 친지, 권속 또는 자신의 소유물 등을 뜻한다고 정의했다.<sup>61</sup> 관계전도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새롭게 친분을 맺어 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관계전도의 예가 많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고(요1장),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행16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행16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와 친척과 가까운 친구에 이르기 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행10). 관계 전도는 주변에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전도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만큼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늘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애써야 하겠다. 관계전도의 중심 요점은 전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 ⑤ 축호전도

축호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정을 방문하여 전도하는 것이다. 축호전도의 장점은 집 안에서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sup>61</sup> 이영훈, 『MTS 전도자 훈련 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2), 54-55.

빌라” (마10:11-12)

축호전도는 전통적인 전도법으로 복음제시형 비관계중심형이다. 21세기 도시의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많다. 그러다보니 각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고, 각 가정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왜냐하면 각 가정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고, 밤 늦게나 들어오기 때문에 축호전도가 쉽지 않다. 이에 현 시대는 비복음제시형 관계중심형이 뜨고 있다. 복음을 한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섬김의 행위를 통하여 전도대상자가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경험하고 있다.<sup>62</sup>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

접근 방법이 어렵지만 훨씬 섬세하게 이웃을 대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때에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 3. 통(通)성경을 통한 전도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쉽지 않다. 남자들은 만나면 군대 이야기, 청소년들은 만나면 게임 이야기다. 농부들은 농사 이야기, 어부들은 생선 이야기 등 직업과 관심 분야에 따라 듣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르다. 그렇다면 이 세상 어떤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이야기일까?<sup>63</sup>

<sup>62</sup> 최동규, 『한국 교회의 전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서울: 목회와 신학, 2009. 9월호).

<sup>63</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15), 9-11.



조병호는 21세기 세상 사람들의 공감을 한꺼번에 받는 이야기는 노벨상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 이유를 시대적 요구인 ‘혁신’ (Innovation)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이한 점이 있다. 세계 70억 인구 중에 유대인의 비중은 0.2%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유대인들은 1901년 노벨상이 재정된 이래 지금까지 190여 명이 노벨상을 수상했고, 수상자 전체의 22%나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창조적인 인간으로 변화 될 수 있었던 원인을 그들의 속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질문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반대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 유대인들이 20세기와 21세기 혁신을 주도하는 데에 그들의 DNA가 다른 민족과 달리 월등해서가 아니다.<sup>64</sup>

조병호는 통통 성경학교 중 성경전도 부분을 총 9개 과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질문한다. 왜 Egypt에서 200년의 노예 생활과 Babylon에서 70년의 노예 생활 던고, 600만 학살을 던고 유대인은 지금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되었는가?<sup>65</sup> 이에 대한 답을 바로 Family School : Jewish 3500years 통통사에 두고 있다. 패밀리 스쿨(Family School)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중요성을 조병호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른들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자기 또래 친구들과하고 노는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놀았던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건네는데 사실 어른들은 별로 재미있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모두 모여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놀랍게도 다 같이 그 이야기에 쪽 빠져 들어옵니다……세상의 모든 분야를 넘어 감동을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sup>66</sup>

<sup>64</sup> Ibid., 11-22.

<sup>65</sup> 조병호, 『통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20), 312.

<sup>66</sup> 조병호, 『3시간에 끝내는 성경 전체 이야기』 (서울: 통독원, 2023), 15-16.

우리가 성경구절을 암송한 것은 시간이 한 주, 한 달, 지나고 나면 외웠다가도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몇 십년 전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읊길 수 있다.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기억을 이야기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데 있어서 구절 암송, 묵상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순서대로 모두 꿰놓으면 어느 구절을 읽어도 성경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sup>67</sup>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령이다(행1:8).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전도가 그리 쉽지 않고, 어려워져 잘 못한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같이 다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세미나와 책을 보고, 훈련을 해도 막상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선뜻 전하지 못하고, 뒷걸음치기가 일쑤이다. 이야기를 붙여주지도 않는다. 이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찾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성경전도이다.

조병호는 그의 책 『통성경학교』에서 성경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35과 모세 - 나라세우기, 36과 다윗 - 민족 통일하기, 37과 선지자와 5대제국, 38과 사마리아인과 앗수르 제국, 39과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 40과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 41과 유대인과 헬라 제국, 42과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 43과 5대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성경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전도의 예로

---

<sup>67</sup> Ibid., 30-33.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홍해를 갈랐던 모세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 이야기. 그리고 년크리스천도 흥미를 가지는 성경 속 5대 제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앗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세계 정복의 선구자 알렉산더를 품었던 헬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던 로마 제국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들은 성경을 모르던 불신자 시절의 필자도 이야기로 듣고 알고 있었을 정도이다.

통(通) 박사 조병호는 이런 성경전도를 통해 이런 꿈을 꾸고 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던 스테반을 생각하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란 디모데를 생각하며 우리도 성경 이야기를 잘 배워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성경 전도자’, ‘성경 스토리텔러’가 되기를 꿈꿔봅니다.<sup>68</sup>

그렇다면 성경 전도자요 성경 스토리텔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조병호는 신약의 5대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 성령강림, 전도, 교회의 시작, 순교로 보았는데 이 5대 사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sup>69</sup>. 이 모든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로 담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처럼 성경 전체를 틀리지

<sup>68</sup> 조병호, 『통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20), 252.

<sup>69</sup> 조병호는 신약의 5대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째, 십자가와 부활이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처벌과 심판, 용서와 사랑이 들어 있는 십자가 사건이다. 성경의 핵심을 말하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과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둘째, 성령강림이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떠난 후 성령이 강림하셨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셋째, 전도이다. 유대교의 특징은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리라고 명하셨다(행1:8; 마28:19,20). 넷째, 교회의 시작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만들어진 유기적 공동체이다. 교회가 세워진지 2천 년을 이어 오늘날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가진 복음의 생명력 때문이다. 다섯째, 순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귀한 생명을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 말라기에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고 따져묻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3:16절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답하셨고, 400년 후 성육신하심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였다.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222-236.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 Ⅲ. 무교회지역 전도

#### 무교회 지역이란?

무교회 지역이란 말 그대로 무(nothing) 교회, 교회가 없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농어촌 산골 깊은 곳에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다. 본 필자가 태어난 고향도 지금까지 교회가 없다. 그래서 그곳의 몇몇 신자들은 교회가 있는 다른 마을 목회자의 차량봉사를 통해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왜 무교회 지역이 생기는 것일까? 첫 번째는 교회가 유지될만한 인구가 없고, 둘째는 목회자의 경제적 여건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젊은 목회자들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의 무교회지역 목회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 지방 출신들이나 특별한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한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롬15:18-20)고 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로마로 하면서 기회가 닿는대로 복음을 전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마게도냐의 북쪽 트라키아의 서쪽에 해당하는 아드리아 바다의 동쪽 지방에 있는

일루리곤(알바니아)까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가지 원칙이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 빌딩 하나에 교회가 3-4개가 있는 곳들도 있다. 각 노회별로 500미터 근방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교단이 다르기는 하나, 바울의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웃지 못할 일이 분명하다. 심지어는 같은 교단 소속 교회들도 한 건물에 세워지기도 한다. 개교회 중심주의에 빠져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거리를 두고 세울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 초기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교단별로 지역을 분할하여 복음전도에 최선을 다했다.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많다. 얼마든지 바울의 마음으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 무교회 지역이 많다. 특히 농어촌이나 섬 같은 경우에는 심하다.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목사 한명으로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시찰, 노회를 넘어 교단별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필요로 한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던 70~80년대에는 시골지역의 성도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대형교회의 못자리가 되어주었다. 골짜기나 개울 없이 어찌 강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는 농어촌에 노령화로 인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농어촌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학교가 사라진지 오래고, 대부분이 고령층 성도들이다. 그러다보니 목회자의 생계조차 위협받아 목회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어야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의 대형교회들은 복음의 빛진자 심정을 가지고 무교회지역과 농어촌 교회들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의 최저 생계비라도 보장해줘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단들도 이 부분에 있어 협력이 필요하고, 지역과 교회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섬길 수 있다. 교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명분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한다.

성도교회 장정일 목사는 제 94회기 제 6회 교회설립세미나(2010.3.11.-13 수도중앙교회 담터수양관)에서 ‘셋강 살리기와 선교목회’ 라는 주제로 ‘셋강 살리기 운동’ 은 작은 교회가 살아야 정체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운동이다. 작아도 건강하게 땀 흘리면서 복음사명을 감당하는 낙도의 오지에 있는 교회 그리고 도시의 미자립교회가 도시의 중(대)형 교회와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상호 성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강의 했다.<sup>70</sup> 작은 교회가 살아야 큰 교회가 산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교회가 없는 지역조차도 협력의 중요성과 도시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 무교회 지역 전도

팬데믹(pandemic)을 지나 앤데믹(endemic)으로 전환되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국가는 교회가 예배를 공중으로 모여 드리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 교회도 있었지만 소규모 인원의 교회들은 무방비 상태로 놓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대형 교회들은 그나마 방송이 준비되어 있어서 비대면 예배가 가능했지만 안타까운 일이었다. 총신대 김지찬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날 중국 정부가 WHO에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 발생’ 이라고 보고할 때만 해도, 아니 그로부터 8일 후에 국내에서 코로나 19

<sup>70</sup> 이치우, 『총회 전도 정책 자료집-전도, 교회개혁, 교회성장 관련』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국내전도국, 2010), 188.

첫 확진자가 생겼을 때만 해도, 이전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필자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라는 생소한 뉴노멀(new normal)에다 교회의 ‘대면 예배’마저 정부의 ‘행정조치’로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리둥절했습니다.<sup>71</sup>

그렇다. 모두가 어리둥절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설왕설래(argue back and forth)했다. 대면예배 강행이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신학자들과 교단도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정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도들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대면예배를 떠나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앤데믹 상황에서도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신학적으로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예배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웁고 그림을 떠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경험했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도 있을 것이기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온라인으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선을 허무는 선교와 전도의 기회도 창출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다. 선교적 차원에서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다보니 농어촌에 있는 고령자들에게 예배는 더 취약한 상황이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전도의 기회도 사라졌다. 3년 여간에 교회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전도와 선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도시교회들이 여름에 단기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행했던 전도마저 끊어졌었다.

<sup>71</sup> 김지찬, 『성경과 팬데믹』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14-15.



그렇다면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손놓고 있어야 하는가? 준비해야 하고, 전해야 하고, 찾아가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가야 한다.

무교회 지역전도를 교단별로, 교회별로, 단체별로 진행해왔다. 각교단별 농어촌선교부가 있어서 섬기고 있지만 세미나 위주의 모임과 교회와 목회자 지원에 국한해 있고, 실제적인 전도에 있어서는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교회들이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청년 대학생 직장인들이 무교회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의 생생한 복음 현장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그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오롯이 쏟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나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고, 그분의 명령의 준엄(stringency)하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역의 경계를 넘고, 지방의 경계를 넘어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지만, 십자가 단번 제사 이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확장을 명(命) 받았다. 무교회 지역의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복음에 대한 헌신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본다.

예를 들어 김남준 목사가 시무하는 열린교회는 해마다 농어촌의 무교회지역을 청년들과 자원자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한다. 그 사역을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커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은 열린교회 성도의 무교회 지역 전도 참여를 바라며 다녀온 후 했던 간증의 기록이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더구나 뿌리 깊이 박힌 우상숭배의 악한 모습이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했음을 느낍니다. 그들의 얼굴에 깊게 패인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새롭게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천리교, 대순진리교 같은 이단들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가 전해지기 전에도 그들의 거짓된 진리를 마을 구석구석에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소경에게서 청력까지 앗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나이든 어른들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와 어떻게 믿음을 바꾸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완고한 그들의 무지한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자식들을 위해 한 세월을 바치고도 이제와 신앙까지 그들의 뜻에 맞춰야 할 만큼 자식들에게 매여 있는 노인들의 모습은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로서 감당해야 하는 세상에 드러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복음의 구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전도를 위하여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농촌 마을의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길 소망합니다.<sup>72</sup>

## 무교회 지역 전도방법

### 관계전도

전도가 가능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전하는 대상도 있지만 받는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하다. 지금 무교회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면 바로 전도 대상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가 없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시작조차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도시 교회들의 전도 가운데 농어촌의 농번기에 실제적인 필요를 도우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 지역의 필요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배, 장판, 전기,

<sup>72</sup> 김남준, 『예배와 감격이 있는 열린교회』 (경기도 안양: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2003), 6.

미용 등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하기 힘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돕는다면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예수님의 전도방법 속에서도 관계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 모두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다.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공시적 관계를 통해 통시적 관계를 여셨다.

### 축호전도

축호전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면서도 쉽지 않다. 특히 이 시대 많은 사건사고와 불신이 팽배해 있어서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다. 외롭고 어려운 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천천히 접근하여 관계를 맺는다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지역사회의 종교와 형편을 살피고 거부와 거절에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가호호(house by house) 기도하며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 행사전도

무교회지역에서 뜻하지 않은 행사는 복음대상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행사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하고, 장소와 프로그램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모임 시간과 장소, 지역대표자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장님의 마음을 얻으면 행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노래와 춤, 준비된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행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신선해야 한다.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여야지 준비하는 사람들의 편의위주로 하면 실패한다. 지역교회 목회자들과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성장이 가능해진다.

### 무교회 지역 전도 후속 조치

도시교회가 일년에 한차례 농어촌교회 전도를 하고 가면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다. 일회성에 그치면 허탈감도 느끼고, 목회자 자신도 상대적 열등감까지 갖게 된다. 받음직한 섬김이 되도록 조용하면서도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시교회는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섬겨야 한다. 물량화 된 방식으로만 섬기고 가면 나중에 농어촌 교회는 뒷 감당이 어려워진다. 안그래도 어려운데 일회성의 선교후에는 후유증도 크다. 그분들로 하여금 잘 관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도와줘야 한다.

### 무교회 지역 전도 평가

농어촌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멀지 않은 곳에 중심(center)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특히 무교회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놓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당시 땅끝으로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다. 지역의 특성상 교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무교회 지역을 향한 지역교회와 모든 자원이 준비된 도시교회의 유기적 연합과 관심이 있다면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다. 1회적 이벤트성 사역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해서 지속적인 전도를 해간다면 이론과 공부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실체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전쟁의 현장인지를 직접 경험해보면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 것 없고, 연약한지를 알 수 있다. 철저히 하나님 신뢰하고 준비해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전도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성도들을 온전함으로 세우는 비결이기도 하다. 그냥 머물러서 성경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전도의 현장이 살아 있으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수가 없게 된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안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고 하기 전에 말씀과 성령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영혼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가감하게 투자하고, 달려가야 한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 주실 선물들이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무지역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 IV. 통(通)성경을 통한 무교회지역 전도 실제

통(通)성경하면 학자 조병호를 떠올린다. 하지만 27년이라는 무교회지역 전도사역을 빼놓고서는 조병호 박사와 통(通)성경을 논할 수 없다. 학자로서만이 아니라, 전도자요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볼 수 있다. 1988년 시작해서 2014년까지 27년간 8월 둘째 주 한 주간 동안 무교회지역을 땀과 눈물로 섬겼다. 성경을 읽고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제 삶가운데 녹여낸 사역이 바로 한시미션의 시작이었고, 27년간 쉬지 않고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다. 조병호는 그의 책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의 서문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음에도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sup>73</sup>

##### 1. 한시(限時)미션

한시미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병호의 그의 『책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를 중심으로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를 통해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고 예수를 믿게 된 조병호는 대통령의 꿈을 접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큰 고민과 깊은 생각에도 풀리지 않던 문제를 위해 6개월이상 산기도도 했지만 그의 갈급함은 해갈이 되지 않았다. 그때 두 가지의 응답을 이렇게 적고 있다.

---

<sup>73</sup> 조병호,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 (서울: 통독원, 2012), 4.

두 가지 응답 중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둘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였다. ‘이다’ 가 아니라 ‘같아’ 였다.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성경을 붙잡게 되었다. 하지만 성경 읽기는 사건 이해, 인명, 지명 등의 어려움과 낯설음에 부딪혔다. 그런중에도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다.<sup>74</sup>

조병호는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도무지 느낌이 쉬 잡히지 않는 것은 ‘한 영혼 사랑’ 이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성경을 읽다가, 폭풍 속에서도 깨지 않고 주무실 만큼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그 밤에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에, 뛰는 제 가슴을 주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 곁에 있던, 그러나 멀리만 있던 것 같은 성경이 제 마음 곁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sup>75</sup>

성경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5공 시절 사회의 아픔과 문제에 있어서도 외면치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신대원 입학, 군입대와 제대 후, 사역을 위한 면접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로인하여 한시미션이 시작되는 은혜를 누렸다. ‘한 영혼 사랑’ 을 실천할 최소한의 시간으로 1년을 자비량으로 경상도 무교회지역 사역에 첫발을 내디뎠다. 1988년에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까지 52번 매주 9시간의 버스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한 어르신과의 쇠고기 사건을 통해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받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며,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또한 믿음직한 섬김의 핵심이 한 영혼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웠다(롬15:16).<sup>76</sup>

1988년 8월 둘째 주에 생명뿌리기 사역이 서울 4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외고리에서 시작되었다. 생명뿌리기 사역 후 6개월에 걸쳐 현지 꼬맹이들과 편지를

<sup>74</sup> Ibid. 25-26.

<sup>75</sup> Ibid., 26.

<sup>76</sup> Ibid., 28-33.

주고 받았으며, 겨울 방학에 외고마을 꼬맹이들을 서울로 초대하여 섬기는 ‘물주기 사역’이 시작되었다. 물주기 사역은 생명뿌리기 사역을 통한 열매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특별사역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월산이 고향인 조병호는 한 영혼 사랑으로 마치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잇는 보스포루스다리를 건너는 심정으로 동서 지역감정을 뛰어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이러한 섬김과 봉사에 힘입어 2009년 8월 14일에 함양군수 천사령은 지역사회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하여 조병호에게 경상남도 함양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다.<sup>77</sup>

조병호는 외교사역 18번째 주일을 지나며 첫 번째 맞이한 50대 아저씨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긴박성을 경험하였다. 그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십자가 위에서 다시 움직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긴박성은 저에게 더 이상 유보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대안 운운하며 보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되, 생명의 긴박성을 해결할 농축적 사역을 하기로 말입니다.<sup>78</sup>

그 장례식 이후 혼자 한시적 기간 동안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짧은 한시적 시간 농축적 생명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들을 찾았다. 그리고 장신대에서 함께할 동역자들 3명과 그리고 어느 교회 청년회 회장 등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다. 52주 동안 20가정 섬기는 것으로 끝나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음을 깨달았다. 조병호는 “어쩌면 주님은 저의 절망 속에서 당신의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고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생명을 듣게 되는 그 꿈을...”라고 회고 했다. 이것이

<sup>77</sup> Ibid., 34-37.

<sup>78</sup> Ibid., 68-77.



생명뿌리기 사역의 시작이 되었고, 한시미션의 기초를 놓는 계기가 되었다.

1주일간의 사역 형태와 틀, 40여 명의 5월부터 준비, 계획으로 시작했다. 사역에 필요한 재정은 자비량으로 했다. 화요일에 신고식으로 경로잔치, 금요일에 마을잔치를 정점으로 4개 마을 분들을 모시고 생명뿌리기사역을 마무리 지었다.<sup>79</sup>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심히 보기 좋다. 어쩌면 이 시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연합의 모습이 아닐까한다.

### 한시미션의 소개 및 약사

조병호는 역사 학자답게 모든 사역을 글로 다 기록하여 남겼다. 그리고 구체적인 단체로 성장시켰으며 사단법인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자료집을 출간했는데 그곳에서 한시미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한시미션은 1988년 조병호 목사(당시 전도사)가 장신대 신대원 재학시절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무교회지역을 일년이라는 한시적기간 동안 섬겼던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후 한시미션은 ‘복음에 빛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일년 52주 중 ‘한 주’ 한시적기간에 ‘종’ 임을 자처하면서 이 땅에 교회 없는 지역을 찾아가 ‘이웃의 기쁨’ 을 위해 ‘받음직하게 섬겨보려는 사역’ 을 감당해 오고 있다. 13명의 F.T(Full-time) 간사들과 600여 명의 한시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고자 ‘말씀’ 에 순종하며 ‘사역’ 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sup>80</sup>

### 한시미션의 성격

<sup>79</sup> Ibid., 77-83.

<sup>80</sup> 한시미션, 『한시미션 소개』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1)

조병호는 사단법인을 신청하면서 『한시미션 소개』에서 선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깊은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만들었다. 한시미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시미션은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한 종교단체로서, 한국의 교회가 한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대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이다. 한시미션은 기독교를 표방하는 종교단체이며 동시에 이 땅에 소외 받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회운동단체이다.

이러한 한시미션의 성격은 한시미션의 마크로 잘 표현되어 있다.



< 그림 4 - 한시미션 마크 >

곧 바깥원으로 표현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친 것이다. 기독교정신의 핵심인 성경이 결코 이 사회와 유리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성경을 펼치되 그 방식에 있어서 숲과나무 방식 곧 통전적 방식을 택한다. 전체를 보며 그 안에서 부분의 조화를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와 이 사회 전체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조화로울 수 있는 한시미션을 꿈꾸는 것이다.

성경을 숲과나무 방식으로 볼 때 성경의 핵심 내용은 말씀과 이웃으로 드러난다. 기독교 운동으로서 성경을 놓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실천으로 이웃, 특히 약한 이웃을 놓지 않는 것이 한시미션의 정신이다.<sup>81</sup>

<sup>81</sup> Ibid.,

## 한시미션 대표 - 조병호 목사

조병호는 『한시미션 소개』에서 한시미션 대표로 소개 되어 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지식과 실천을 겸비한 냉철하고도 가슴 따뜻한 목사이다. 그는 성경의 숲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무를 살피는 통독방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편만케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목사이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말씀한 구절 한 구절을 실천의 땀 한방울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는 목사이기도 하다.

그의 이러한 고민은 조병호 목사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이 땅의 기독교청년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기본을 바로 성경의 인물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여 선포한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성경인물들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땀 흘려 일할 것을 외친다.

이 민족의 기독교청년들과 함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동지(the same mind), 동행(accompany), 동역(partnership)하기를 꿈꾸는 생각 많은 실천가이기도 하다.<sup>82</sup>

조병호는 조직과 행정, 리더십에 있어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이며 출판과 여러 조직을 구성하여 섬기고 있다. 큰 숲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무도 통(通)으로 볼 수 있는 직관(intuitive)을 가진 역사학자요, 가슴 따뜻한 열정의 전도자요, 진실한 목회자이다.

## 한시미션 사역 소개

생명뿌리기사역 (매년 8월 둘째 주간)

---

<sup>82</sup> Ibid.,

조병호의 생명뿌리기 사역에 대해 『한시미션 소개』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얼마나 복음의 긴박성에 잡혀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생명뿌리기 사역은 1988년 ‘복음의 긴박성’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되었다. 이 복음의 긴박성은 1988년 이래로 2014년까지 매년 8월 둘째 주 생명 뿌리기사역을 살아 있게 한 원동력이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생명뿌리기 사역의 목적은 빗진자의 의식과 복음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일년 52주 중 한 주를 택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사회·문화적 혜택은 물론 복음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마을의 주민들(어르신과 꼬맹이)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며 정해진 때에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부대끼면서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의 화해, 동서 지역의 화해 그리고 남북의 화해까지도 꿈꿔보고 있다.

한시미션은 세 가지 원칙을 정하여 생명뿌리기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첫째, 예절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열려진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린다. 둘째, 교회 없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지역교회를 풍성하게 하며, 복음 안에서 동서남북의 화해를 추구한다. 셋째, 밥 먹고 복음만 전하는데 힘쓰며, 집단의 형태를 띠지 않고 일대일 사역을 진행하며, 말씀과 사역의 틀을 가진다.

또한 생명뿌리기사역은 사역기간 동안에 성서에 나타난 7가지의 정신을 구체화시키는 장이 된다. 즉 일정기간 동안 구별되어 헌신된 나실인 정신,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자비량 방식, 복음에 대해서 빗진자된 의식, 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중임을 자처하며 스스로 권리 포기,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섬기는 반응직한 섬김, 이웃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들러리의 기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무익한 종의 고백이 그것들이다.

이런 원칙과 정신을 가지고 경로잔치, 노천성경학교, 수요찬양예배, 축호전도, 목요캠프, 마을잔치, 한시클로스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시킨다.

한시미션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13년간 한반도 무교회지역과 중국 연변 일대

172 여 개의 마을을 섬겨왔다.<sup>83</sup>

그리고 모든 사역에는 원칙과 정신을 담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위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준비가 있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체적인 사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행사	내 용
경로잔치	여는 사역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는데 의미를 둔다. 거동의 불편으로 인해 참석치 못하신 가정은 미리 싸두었던 음식을 준비하여 사역원이 직접 찾아간다.
노천성경 학교	적극적 전도대상인 어린이들을 집중교육함으로 그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인형극, 성경동화, 찬양과 예배, 일대일 데이트 등의 사역을 진행한다.
수요찬양 예배	인접지역 교회와 연계하여 마을 분들을 교회 문턱이나마 넘어보시도록 하며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지시도록 하는데 의미를 둔다.
축호전도	일대일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가능하면 영접기도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한다.
목요캠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찬양과 말씀집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마을잔치	탄는 사역으로 마을의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기며, 노천성경 학교시 배운 것을 어린이들이 발표하게 한다.
한시 산타	각 마을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소외된 가정에게 준비한 선물을 금요일 한 밤중에 몰래 드리고 온다.

< 표 2 - 생명뿌리기 사역 >

그리고 이 생명뿌리기 사역의 장소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점점 그 범위와 사역의 장이 확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개권역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중국 연변으로 가기도 했다. 여기서는 1988년부터 2001년까지 13회차에 걸친

<sup>83</sup> Ibid.,

1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생명뿌리기 사역을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표로 정리해보았다.

회차	년도	장소
제1회	1988년 8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일대 4개 마을 (당동, 벽계, 소이, 외고)
제2회	1989년 8월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일대 4개 마을 (철수, 평지, 우사, 신기)
제3회	1990년 8월	경상남도 함천군 용주면 일대 4개 마을 (장전, 공암, 노리, 팔산)
제4회	1991년 8월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일대 4개 마을 (고신, 고대, 병, 상촌)
제5회	1992년 8월	경상남도 진양군 수곡면 일대 6개 마을 (사곡, 구태, 대우, 대각, 월계, 덕곡)
제6회	1993년 8월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일대 10개 마을(세동, 월촌, 마전, 암전, 신화, 적곡, 가산, 관동, 가동, 화암)
제7회	1994년 8월	5개 권역 /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충청도 중원군 주덕면,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일대 19개 마을(둔전, 대전, 어리/ 갈전, 하촌, 창안, 산성, 중촌, 내북, 성남, 음동, 안터, 매남, 궁평, 재암, 금곡, 광암/ 동동, 서동)
제8회	1995년 8월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중국 연변 일대 15개 마을(둔계, 유동, 유서, 흑석, 너디, 영골, 자연동, 두월, 예덕, 소능, 평내, 백필, 금곡, 수침동, 새너디)
제9회	1996년 8월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안동시 풍산읍, 중국 연변 일대 18개 마을(신양, 현애, 오치, 서미, 숫골, 앞결, 뒷결, 방명, 황해, 동막, 가평, 은봉, 샘실, 두룩실, 구미, 두문, 눈돌, 마장)
제10회	1998년 8월	경상남도 함천군 가회면 일대 11개 마을(가동, 등곡, 안불, 부처골, 비기, 장대, 검암, 산두, 도탐, 한글, 오곡)
제11회	1999년 8월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전북 남원시 아영면 일대 21개 마을(구산, 대상, 매치, 상·하백현, 양천, 윗·아래안골, 재궁, 평광평, 고인, 구상, 부동, 상성, 서정, 송리, 외지, 울동, 청계, 화성)
제12회	2000년 8월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유림면 23개마을(산두, 임호, 대포, 고태, 신기, 마상, 목현, 금반, 월평, 사구/장항화촌, 우동, 회동, 유명, 옥산, 화암, 판음, 창촌, 서주, 손곡, 지곡, 미천)
제13회	2001년 8월	경남 밀양시 무안면 일대 22개 마을에서 140명의 사역자가 1000여

		가구를 섬김
--	--	--------

< 표 3 - 생명뿌리기 사역 현황 >

13년간 무교회지역 172개 마을 7,000여 가구를 1,330명의 사역자들이 3억 5천만원의 자비량 사역비로 섬겨왔다.<sup>84</sup>

13년간 생명뿌리기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다. 철저한 사역의 핵심 원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나실인 정신, 자비량 방식, 복음에 빛진 자 된 의식,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종 의식, 반응직한 섬김, 들러리의 기쁨, 무익한 종의 고백 이렇게 성경에서 7가지 핵심 원리들을 구체화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였다. 한시사역자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은 한여름 무더위에도 식을 줄 몰랐고,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되었다.

#### 한시편지 사역(생명뿌리기 사역 이후 - 물주기사역 이전)

생명뿌리기 사역 이후 후속조치로 물주기 사역 이전에 편지 사역을 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뿌리기 사역에 참여했던 한시사역자들이 정기적으로 편지를 써서 아이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관계를 이어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한시 생명뿌리기사역이 무교회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사역이라면, 한시 편지사역은 ‘현재 놓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이 사역은 여름의 생명뿌리기사역 이후부터 다음 해 봄방학까지 6개월에 걸쳐 한 달에 두 번씩 노천성경학교 때 만났던 짝꿍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한시 편지사역은 사역자들이 어린이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며, 기독교교육을 진행하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사역자들이 떠난 이후에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버팀목의 역할을 한다. 물론 편지사역 이후에도 자유롭게 편지가

<sup>84</sup> 한시미션, 『한시미션 소개』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1)

오고가지도 하지만, 이 사역 기간만큼은 서신 왕래를 사역으로 알고 잘 쓰도록 한다. 짝꿍과의 서신왕래 상황은 편지사역팀이 구성되어 점검하며,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한다.

이러한 사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던 것과 사도 바울이 그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던 것, 사도 바울이 그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로 문안한 성서의 내용들을 모델로 하여 한시 사역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한시 편지사역은 여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 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작게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다.<sup>85</sup>

한시사역자들은 전반적인 사역의 모든 실천 내용들은 철저히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으로 열매 맺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어떤 순종과 섬김으로 살아야하는지를 깊이 있게 실천하였다.

## 2. 성경통독 사경회

성경통독 사경회 (매년 1월 겨울 성경통독, 7월 여름 성경통독)

한시미션의 사역다운 사역의 시작은 성경통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사역의 기본 정신과 실천적 순종의 삶은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러기에 통독 사경회를 사역 전에 하게 되었고, 그 성경통독을 통한 영적 무장을 하여, 실천적 장으로 무교회지역을 섬기게 된 것이다. 조병호는 『한시미션 소개』에서 성경통독 사경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한반도 무교회지역을 섬겨보리라” 는 조병호 목사와 40여 명의 청년들의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한시미션이 성경통독사경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sup>85</sup> Ibid.



사역다운 사역을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즉 한반도 무교회 지역을 섬기되 단순한 민족애로 다가서는 농활을 넘어 말씀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한시미션이 한반도 무교회 지역 사역을 시작한 것은 1988년이었다. 그다음 해인 1989년, 무교회 지역 어린이들을 서울로 데려와 하는 사역(이것을 ‘한시물주기사역’이라 부른다)을 준비하면서 조병호 목사와 사역자들은 그들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를 느꼈다. 그들의 사역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꼬맹이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어린이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바로 영적 무장의 시간인 것이다. 이것이 제1회 한시성경통독사경회(1989년 2월, 왕십리기도원에서)를 시작하게 된 동기였다.

이렇게 사역을 전제로 시작된 한시성경통독이 지향하는 목적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년 52주 중 단 1주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다. 그렇기에 조병호 목사는 성경통독이 끝날 즈음에는 언제나 이렇게 강조한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한 번 통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보고 느낀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시미션은 이러한 말씀 운동을 통하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sup>86</sup>

한시 성경통독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다. 이것은 한시미션의 다른 사역들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척도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a field)이기 때문이다. 세끼 식사를 통해 육의 양식을 채우듯, 영의 양식을 위해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사역 전에 영적 무장을 위해 일주일을 내어 성경을 읽는 성경통독

<sup>86</sup> Ibid.

사경회는 매우 중요한 사역의 하나가 되었다.

한시 성경통독 사경회는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전체를 통으로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다. 뿐만아니라 한시 성경통독 사경회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보는 안목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조병호 박사가 말하는 성경통독의 특징들을 12가지로 볼 수 있다.<sup>87</sup>

성경통독 사경회의 필요성은 한시미션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요소가 있지만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마병과 물질이 있어도 소용없다. 사람과 돈으로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것은 결국 밀천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한 영혼이 보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과 가치관이 생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약한 이웃들을 섬길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영적 준비에 있어서 성경통독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이다.

### 성경통독 사경회의 성과

성경통독 사경회가 지향하는 목적은 1년 52주 중 단 1주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통독 사경회는 축적되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으며, 사전 모임과 회의를 거쳐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홍보하고 알리는 일을 했다.

<sup>87</sup> Ibid. 12가지 특징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부록 3 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 결과 성경통독 사경회를 마치고 학생들이 보낸 감사편지가 많은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경통독 사경회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능력의 말씀과 한시 사역자들의 섬김 속에서 자신도 그러한 한시 사역자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학생의 소망이 인상적이다.<sup>88</sup>

성경통독 사경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성경통독 사경회의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짧은 편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sup>89</sup> 학생들의 진솔한 고백이 감동적이다. 또한 신문에서 바라본 한시미션 성경통독 캠프를 살펴보자.

크리스찬 월드리뷰 최치영 차장은 다음과 같이 취재하였다.

한시미션이 주관한 제 4회 중고생성경통독캠프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양수리 수양관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는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600여명이 참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한 600여 명, ‘섬김이’ 선생님들은 모두 70여 명. 선생님들은 조별로 배치 되어 특별히 N세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N세대들이 4박 5일동안 성경 66권을 읽도록 그들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CCM 콘서트, N세대 특강, 도전 말씀왕, 장기자랑 등 다양한 특별프로그램도 준비하였다.

이번 캠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당시 인물들의 마음을 참가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려고 애쓴 통독사 팀, 찬양 팀은 성경의 흐름에 맞는 찬양, 간식 팀은 학생들이 졸음을 이겨내고 성경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N세대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일 뿐이다. 이번 성경통독 캠프는 그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것이며, 성경의 생명력이 있음을 배우는 장이 되었다. 이번 캠프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편지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학생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조병호 목사의 독특한 성경 강의와 인상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을 역사적인 시대순서를 따라

<sup>88</sup> 성경통독원, 『성경통독 관련자료 I』 (1989-2000년) 자세한 편지 내용은 부록 4 참고.

<sup>89</sup> Ibid. 편지는 부록 5 참고.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의 주요인물들을 자세히 조명함으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비전과 도전을 던져줬다. 조병호 목사는 때로는 춤을 추기도 했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성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sup>90</sup>

조병호가 얼마나 다음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했는지를 볼 수 있다. 시대를 읽고 문화와 정서에 이르기까지 N세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오직 말씀 앞에 저들을 세우고자 애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경통독 사경회를 통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도전 받고, 성경을 통한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한시미션을 앞 둔 한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다. 성경통독 사경회는 강력한 영적 무장의 시간이 되었다.

### 3. 생명뿌리기 사역

#### 생명뿌리기 사역을 위한 준비 모임

생명뿌리기 사역은 빛진 자의 심정에서 시작되었다. 베풀고, 나누는 자의 모습만으로는 받은 많은 것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을 찾게 되었다. 그들은 52주 중, 1주일간이라도 밥 먹고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사는 일에 동참한 자들이었다. 조병호는 “내 삶의 터전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을지라도 일정 기간이라도 섬길 지역에 자신을 노출시켜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sup>91</sup>

결심만으로는 어려운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배우기

<sup>90</sup> 『N세대들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 말씀의 잔치 중고생 성경통독캠프 현장 스케치』  
<http://www.christianwr.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 [2023. 7. 19. 최종접속]

<sup>91</sup> 조병호,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 (서울: 통독원, 2012), 94-100.

위해서는 준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현장에 뛰어 들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갈등, 날씨로 인한 방해가 있지만 1주일 동안 ‘가서’ 그곳에 ‘나를 있게’ 하려는 동행자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영적 전쟁터로 향하는 첫 번째 준비는 바로 ‘그곳에 나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sup>92</sup> 먼저 사역에 앞서 이 일을 왜 해야하는지 당위성과 복음에 빛진 종들로서의 마음을 다지는 ‘들어가면서’에 담긴 글을 통해 보자.<sup>93</sup>

하나님 사랑에 매인바 된 종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맡겨주신 사곡 땅 600여분을 원액으로 쏟아부어져서 섬겨야 할지를 전하고 있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쓰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딤후4:5,6). 온전히 부어짐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한 바울 사도처럼, 한시인들 또한 그렇게 원액으로 쏟아부어지길 소망했고, 그렇게 부어졌다. 생명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한시 사역자들의 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였다.

그리고 섬겨야 할 지역에 대한 현황보고와 지도 및 충분한 자료들을 세 차례의 답사를 통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토대로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참하는 한시인과 사역의 범위가 커지고, 섬세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역내용을 크게 일곱가지로 볼 수 있다.

- 1) 경로잔치(위로부터의 접촉시도-여는 사역으로 동네 어르신들의 마음문을 열게하는데 의미를 둠),
- 2) 각 마을별 노천성경학교(인형극, 성경동화, 찬양, 설교, 성서학습 등),

<sup>92</sup> Ibid., 99.

<sup>93</sup> 한시미션, 『뿌리기 사역 1 (1988-1994)』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2-1-1). 부록 6 참고.

- 3) 수요찬양예배(사역지 인접지역교회와 연계하여 사고지역분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성전문턱을 처음 넘어보게 하는데 그 의미를 둔다),
- 4) 축호전도(2인 1조-복음의 핵심요약),
- 5) 목요캠프집회(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찬양과 말씀집회),
- 6) 사곡 고을 축제(사곡마을 모든 분들을 모셔서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기는데 의미를 둔다<닫는사역>),
- 7) 한시싼다,
- 8) 농사 일손 돕기, 마을 청소하기 등으로 섬겼다.<sup>94</sup>

인원 배치와 모든 준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섬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했다. 그러면 사전준비는 어떻게 했는 1991년 자료를 통해 살펴보겠다. 한시 사역자들의 생명뿌리기 사역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첫모임이 1991년 12월 29일에 ‘말씀서예’ 라는 곳에서 한시장, 한시지기, 회계, 서기 직책부여 및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모였다.<sup>95</sup>

1주일의 섬김을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아래 모든 섬김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단장모임 7차, 전체 준비 모임 7차, 답사 3차, 기타준비와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했다. 그렇다면 사역을 위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자.

크게 다섯 가지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한시인들은 기도 합니다.

첫째, 사역공동체 한시의 하나인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건강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어디든지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열려야 하나님께서는 일주일동안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 자신의 건강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sup>94</sup> Ibid.

<sup>95</sup> Ibid.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7 참고

둘째, 사역공동체 한시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각의 지체가 바로 서야 나 자신 또한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의 경영을 위하여 보이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또 옆에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사역의 인도자들인 조병호  
 전도사님과 한시장 · 한시지기 그리고 나와 함께 한 마을에서 사역할  
 한시조원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나 자신이 만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역기간동안 구체적 복음전도 대상으로 적어도 7명의 영혼들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바라보는  
 들러리의 기쁨, 즉 한시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한영혼, 한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째, 우리가 준비하는 마병중에서 물적자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 다른이의 마음 · 다른이의  
 주머니가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주머니가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혜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즐거이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먼저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섬겨야 할 사역지 결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강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실진대, 그중에서도 92년의  
 한시의 모습에 맞는 일곱마을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역지 결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웃의 기쁨은 한시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한 한시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sup>96</sup>

---

<sup>96</sup> Ibid.

한시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역 한 주 전에 성경통독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지에서 고스란히 그 마음을 풀어놓기 위한 몸부림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적자원인 기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 시간을 보겠다.

구 분		김○○ 장○○		윤 ○ 강 ○		홍 ○ 조○○		예비한시인 (4)		누 계		
기 간	4.6- 5.21(46)	15분	1380분	10분	920분	5분	460분			30분	2,760	4 6 h
	5.22- 6.30(40)	20분	1600분	15분	1200분	10분	800분			45분	6,360	1 0 6 h
	7.1- 8.7(38)	25분	1900분	20분	1520분	15분	1140분	5분	760분	65분	11680	1 9 4 h
누 계		4,880분(81h)		3,640분(60h)		2,400분(40h)		760분(12h)		11,680분(194h)		

< 표 4 - 기도시간 ><sup>97</sup>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전략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기도다. 그러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일에 시간을 나눠서 기도로 준비한 것을 볼 수 있다. 조병호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는 그분들이 우리 섬김의 진실함을 보시고 민족애를 훨씬 넘어선, 더 깊은 사랑을 보실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함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붙들어 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여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텐데, 우리 자신들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 띄약별 아래에서 물러터진 우리의 모습이 여지없이 폭로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sup>98</sup>

<sup>97</sup> Ibid.

<sup>98</sup> 조병호,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 (서울: 통독원, 2012), 109-110.



## 자비량 선교

두 번째 준비는 물적 자원입니다. 한시미션에서 기본적인 사역의 원칙 중 물적 자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자비량을 원칙으로 했다.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보니 돈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도 총독직만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왕의 조서를 통해 재목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움직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던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 애굽 피난길에 오른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망명자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씨뿌리기 사역을 위해서도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사역비를 위해서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로서의 가장 모범적이고, 구체적 섬김의 대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는 수많은 금액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안디옥과 빌립보 교회의 재정 지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비량으로 충당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살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생업과 전도를 이어갔습니다(행18:2,3).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돈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사람 섬기는 일에는 돈이 필요합니다.<sup>99</sup>

조병호는 한시 사역자들의 자비량 헌신에 대한 결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100</sup>

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고, 헌신을 촉구하고 있다.

자비량선교의 기본구성은 이와 같다.

\* 총 예상 사역비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73명의 사역 참가자들이 준비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외부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sup>99</sup> Ibid., 101-108.

<sup>100</sup> 한시미션, 『뿌리기 사역 1 (1988-1994)』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2-1-1). 부록 8 참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시는 일, 우리들의 주머니가 다른이들의 주머니보다 더 크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가 헌금한 천만원의 사역비 보조보다 우리 사역참가자 73명이 다섯달동안 준비한 천만원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 사역 참가자들이 준비하여야 하는 10,000,000원 중 6,000,000원은 인도자 · 한시장 · 한시지기 · 서기 · 회계 등 17명으로 구성된 한시장단에서 준비하며, 나머지 4,000,000원은 20여명의 한시인 참가자와 40여명의 예비 한시인 참가자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합니다.<sup>101</sup>

한시장단의 헌신은 직분에 따른 차이를 두었다. 한시장단들의 직분은 헌신의 직분입니다. 우리 한시는 직분 맡은 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이 뛰어 다니며, 또 더 많은 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또 한번이라도 더 사역에 참가했던 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낼 것입니다. 그만큼 사역의 귀함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을 진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다짐을 보면 이렇다.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최대한의 것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채워진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위해 항상 빈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빈자리는 바로 내가 채울 자리입니다. 나의 최대한의 것을 드려서 말입니다.<sup>102</sup>

한시장들의 헌신을 보면 기본금액을 설정하고 기본금액에 사역참가년수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헌신금액을 스스로 결정하였다. 한시지기들과 한시인들에 이르기까지 헌신의 직분에 맞는 금액을 드리도록 했다.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 작지 않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역비 헌금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준비하였다.

무거운 짐도 나누어 들면 아주 작아집니다. 어차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길 원합니다. 쌓여가는 헌신이 우리에게는 더욱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sup>101</sup> Ibid.

<sup>102</sup> Ibid.

- \* 4월중으로 최소헌신금액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사역비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책정한 후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서함을 통하여 회계담당자에게 발송합니다.
- \* 약정된 금액은 5개월 (4월, 5월, 6월, 7월, 8월)로 나누어 소정 금액을 매월 10일 한시선교회 구좌로 분납하며, 나머지 잔액을 사역직전에 정산합니다.
- \* 한시선교회 사서함 : 151-600 〇〇〇 우체국 사서함 〇호
- \* 한시인 '92 여름사역비 현금구좌 : 〇〇은행 〇〇〇-08-\*\*\*\*\* 김 〇〇, 〇〇은행 〇〇〇-6 -\*\*\*\*\* 김 〇〇
- \* 사역비 월별 기본분납금액 한시장 : 40,000원 / 한시지기 : 30,000원 / \* 예비한시인 : 12,000원, 18,000원, 20,000원, 25,000원 5,000원<sup>103</sup>

자비량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기도하여 적용하고 있다. 조병호는 한시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글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맺으면서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주일간의 수업을 위해 6~8만원의 돈을 학교에 내고 2만원 정도를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 1/3정도를 일하고 2~3만원 정도를 받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을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이 혜택받은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섬기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 손과 발, 그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문화적 혜택은 물론 복음의 혜택에서조차 소외된 불쌍한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들과 우리가 평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복음의 빛진 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한시인들에 의해서 그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이, 아니 큰 부분이 최대한으로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시의 돈은 한시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쓰여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sup>103</sup> Ibid.

1992년 4월, 한시인 조병호 올림<sup>104</sup>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 성경 몇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마가복음 8:36),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25-26). 목숨을 잃으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예수님께서서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받은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자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영혼에 대한 가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돈을 자신을 위해서도 아닌 남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시적인 돈이지만 영원을 위해서 쓰여지기에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것이다.

## 경로잔치

사람이 가장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잔치이다. 그곳은

---

<sup>104</sup> Ibid.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누릴 수 있다. 먹을 것이 있고, 노래와 춤이 있다. 원래 한민족은 춤과 노래에 능한 민족이 아닌가! 그러기에 전도를 할 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또 어디 있을까! 조병호는 이것을 십분 잘 이용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그의 책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에서 경로잔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병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꼼꼼하게, 섬세하게, 많은 힘과 물질을 드려서 최선을 다해 섬겼는지를 볼 수 있다. 요약 정리하여 소개한다.

시골에서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 그래서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 유지나 이장님의 눈에 벗어나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고식이다. 크고 작음을 떠나 진중(珍重)함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시인들이 사역지에서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있다. 인사이다. 10번 만나면 10번 허리를 90도로 숙여 배꼽인사를 한다. 마을분들은 일주일 내내 인사를 받는다. 그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부터 인사 올린다. 그분들은 얼마나 뜬금없는 일이겠는가. 어르신들께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의와 법도를 아는 청년들로 비치는 것은 중요하다. 인사가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 첫 관문을 잘 통과해야 다음이 수월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절 있는 젊은이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아이들 성경학교가 가능해진다. 어른들의 허락 없이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베이스캠프가 차려지면 동네를 누비며 쓰레기를 줍고, 이장님 댁에 가서 인사도 드린다. 1주일 동안 마을에 머물것과 화요일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찬을 대접하고 경로잔치를 하겠다고 허락을 받는다. 화요일 오전이면 사역원들이 각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모셔온다. 팀별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모셔오고, 본진에서는 주방팀이 음식을 준비한다. 이장님의 안내방송도 꼭 부탁드린다. 그럼에도 집집마다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모시고 와야 한다. 차량도 분주하게 각 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을 모신다.

경로잔치는 점심 한 끼가 목적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일수록 외출을 꺼리시므로 더 모셔 오려고 했다. 이웃 동네에 살면서도 거동이 불편해서 자주 뵙지 못하던차에 이 자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귀한 만남이 이뤄지기도 한다. 세계는 지구촌(地球村)이 되어가는데, 이 좁은 산골 어르신들은 세월의 풍상(風霜) 앞에 멀어져만 가고 있다. 그래서 병들고 외로운 분들을 더 모셔 오기로 작정했다.

잔칫상이래야 떡, 몇 가지 과일, 나물 종류와 밥과 육개장, 가끔 쇠고기 탕수육정도다. 무더위에 주방팀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후 인원이 계속 늘어서 화요일 메뉴는 삼계탕으로 바꾸었다.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자리도 불편한데 식사 메뉴만으로 즐거웠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도 없는 메뉴, 즉 딱딱하고 견고하게 코팅 되어진 각자의 이름표 부채로 어르신들의 땀을 식혀드렸다. 그 수고와 섬김 자체를 좋아해 주셨다. 또한 마른 장작 같은 어깨와 손, 발을 열심히 주물러 드렸다. 당신의 자녀 손자들도 안마 해준적이 없는데, 전문적인 마사지사들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안마를 해드릴 때 돌같이 굳었던 얼굴을 펴시고 즐거워하셨다.

음식 드시는 어르신들께 정감 있는 말과 정성을 다한 섬김 이야말로 초대받은 자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모셔 놓고 값없는 미소와 대량 생산의 서비스만 드리는 경로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손에 힘이 없는 어르신들은 흘릴 수 있기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한다. 식사가 끝날 때 즈음, 민요 한 가락으로 한마당 즐거운 춤판을 벌인다. 이렇게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고 흡족하실 만큼 ‘신고식’ 다운 준비된 말을 한다. 그리고 모든 사역원들과 함께 큰 절을 올리면 신고식이 끝난다. 이후에 오시지 못한 어르신들 가정에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챙겨서 2차 경로잔치를 한다. 문을 열고 단음에도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레 섬긴다. 신고식을 잘 마치면 경계의 대상에서 마을 식구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sup>105</sup>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는 한시 사역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참으로 저들의 섬김과 수고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 노천성경학교

<sup>105</sup> 조병호,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 (서울: 통독원, 2012), 120-132.

교회가 없기에 여름성경학교를 해본적이 없던 시골 아이들에게 장소를 불문하고 앉는 곳이 곧 교실이 되어 성경학교가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노천성경학교이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공부를 통해서 만날 영혼들에 대한 섬김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말씀을 가르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형편으로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영적전쟁이 사역자들을 더 힘들게 했다. 그 일로인하여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사역의 현장을 조병호는 그의 책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에서 노천성경학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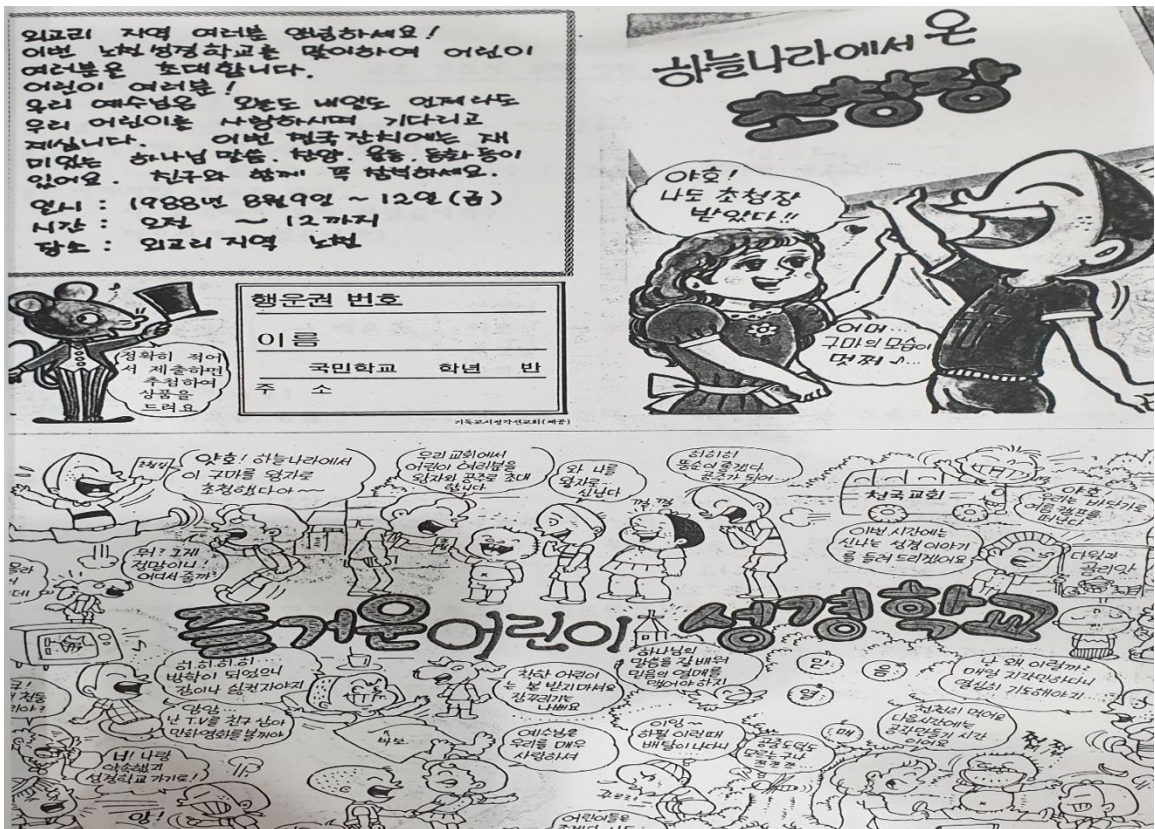
사역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한다. 하지만 어르신들께 신고식을 하기 전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기에 하루를 지내고 나면 아이들의 호기심은 배가 되어 있다. 노천성경학교를 할 장소를 꾸미다보면 아이들의 질문이 있고, 그때 내일의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진다. 8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9시. 궤도를 걸고, 기타를 치며, 율동을 하는데 때로는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많을 때도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과 몸을 사리지 않는 율동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찬양 후에는 1대 1로 마을 곳곳에 흩어져서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더운 날씨에 시냇가에 밭도 담그고 밭도 씻어주며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다. 수, 목, 금요일 오전 3시간씩 3일 동안의 만남은 서로에게 정(情)이 드는 시간으로 충분하다. 농촌에서는 어른들의 바쁜 일손들로인해 아이들과 눈을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다보니 3일동안의 눈 맞춤시간은 특별한 시간이다. 조병호는 아이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손과 손이 만나고, 밭과 손이 만나고, 이제 눈과 눈이 만나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몸 구석구석에 박힌 선생님들의 시선을 기억할 것입니다..... 선생님과 아이의 눈과 눈 사이에는 아이스크림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한다면, 빨리 친해질 수는 있으나 아이스크림이 녹고 나면 그 느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별 아래에 그렇게 오래도록 붙어 다니지만 둘이 잡은 손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습니다.”<sup>106</sup>

<sup>106</sup> Ibid., 136-140.

노천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보자. 그들이 사용했던 일대일 성경공부교재이다.<sup>107</sup>

내용을 보면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교재를 준비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네 번에 걸쳐 토요일에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신론을, 목요일에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간론을, 금요일에는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기독교론과 기도에 대해 배운다.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야기로 잘 전달했다. 초창기 사용했던 초청장과 성경학교 포스터이다. 그당시 컴퓨터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와 그림들은 대부분 수작업을 통하여 이뤄졌다. 그만큼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은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을 요구하였다.

<sup>107</sup> 한시미션, 『뿌리기 사역 1 (1988-1994)』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2-1-1). 부록 9참고.



< 그림 5 - 여름성경학교 초청장 및 행운권, 포스터 ><sup>108</sup>

### 수요찬양예배

수요일에는 노천성경학교와 수요찬양예배가 있어서 매우 바쁜 날이기도 하다. 이 날은 지역교회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교회지역의 어르신들이 교회 문턱이나마 넘도록 돕는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는 분들도 계시다. 그분들의 좋은 인식은 그대로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교회가 이상한 곳이 아니라, 가볼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각 마을을 방문하여 일대일로 자신이 모시고 와야 할 분들을 찾아뵙고 차량으로 모시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한다.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고 섬긴다. 교회 문턱을 넘으면 쉬운 찬양과 순서를 따라 기도, 말씀을 전하되 기존의 예배 틀에 매이지 않는 순서로 그분들의 마음을 연다. 그래야 현지 교회 목회자와 연결해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친밀함 가운데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없이는 접근조차도 힘든 것이 농어촌의 영적상황이다.

### 축호전도

축호전도는 사역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기도 하다. 몇 일 사이에 관계가

<sup>108</sup> 한시미선, 『생명뿌리기사역 관련자료 II』 (1988~1991년 사역자료).

형성된 어르신들 가정을 일대일로 방문하여 복음제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것이다. 집중력과 기도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곳에서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까지도 전도의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인사, 안마, 화장실 청소, 일손 도와드리기, 말벗해드리기 등 꾸준히 점수를 얻어야 결정적인 순간 복음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분들의 가정형편과 속사정까지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만큼 복음에 소외된 지역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축호전도 때는 암송했던 말씀 구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축호전도 때 사용하는 말씀 구절이 있다.<sup>109</sup>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군인들에게 무기는 총과 칼이듯이 사역자들에 있어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엡6:17). 말씀을 얼마나 잘 암송하고, 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특히 서론 부분에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4)는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 다 집에 살고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설명하기도 좋기 때문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만물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셨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죽게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삼일만에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란다. 이렇게

<sup>109</sup> 한시미션, 『뿌리기 사역 1 (1988-1994)』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2-1-1). 부록 10참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따라하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친다.

분명히 반대에도 부딪친다. 아예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에도 침착하게 온유한 말로 잘 대답하고 소극적 전도 대상자(어르신들)로 구분하여 적극적 전도대상자(유초등부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전도한다. 대부분은 며칠 사이 받은 섬김과 대접 때문에 거부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마음을 얻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 축호전도 결과

축호전도는 사전에 철저한 마을과 각 가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고, 충분한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기에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다.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축호전도 결과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열매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 가운데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대기 마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보자.

대기 : 대기마을은 주변의 목곡, 복암, 덕만 마을에 비해 가구수와 인구수가 많고 대기국교와 보건소가 있어서 생활 상태가 가장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전도하는데 있어서도 편리한 점을 주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본 교회의 거취점을 이곳에 두었다는 것보다 효과적인 전도를 가능하게 했다. 전도대가 주민들에게 경로잔치등을 통해 호감을 주었기 때문에 접촉점 형성에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불교의 영양권 아래 있는 지역이라는 점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소개하고 믿음을 권유함에 있어서는 배척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도대의 예의바른 모습 때문에 기독교 신자에 대한 호감만큼은 충분히 심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는 체계적으로

신앙화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세습된 것이라는 것 때문에 선조를 좇아 무조건 믿는다는 식의 오히려, 유교적 색채를 띤 것이었다. 주변 마을에 비해 결신자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다.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한 수준이 어디까지 일린지는 의문이 많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결신자 명단이다.

진○순, 지○석 (60세), 박○남 (55세, 지○석씨 부인), 노○엽 (67), 진○수 (신○○락)씨 부인, 송○근(임○시의 어머니), 이○순 (66), 이○순(54), 김○자(지○이씨 며느리), 지○근 (21) 며느리, 지○이 (70), 김○분(이장님 어머니), 박○용 할아버지, 김○연, 박○술, 안○점, 옹○기 할아버지 부인, 윤○병 (64), 지○석 할아버지, 지○덕 할머니<sup>110</sup>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결신하게 되었다. 한 마을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일 줄 믿는다.

## 목요 캠프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꿈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다. 저녁 6시 40분까지 사역자들의 베이스캠프에 데리고 와서 들어오는 대로 이름표를 만들어 걸어주고, 둥근 원으로 서서 찬양 율동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당시에 자주 먹기 어려운 수제돈까스에 포크와 나이프까지 준비하고, 감자튀김과 샐러드도 준비해서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한다. 식사 후에는 청소년을 위한 특강의 시간을 잠시 갖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겁게 한다. 그리고 몇 분의 강사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꿈을 갖도록 강의를 들려준다. 그리고 조병호 목사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초청한다. 설교 후에는 선생님과

<sup>110</sup> 한시미선, 『생명뿌리기 사역 관련자료 II』 (1988~1991년 사역자료).

함께 마주 앉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찬양을 불러 주고, 선생님과 서로 안고 찬양해 준다. 그 다음, 선생님은 친구를 위해서 친구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운동장에서 축호전도 다녀온 사역자들이 밤길에 후레쉬로 길을 만들어 주고 찬양으로 마중을 해줌으로 끝난다. 2001년에 있었던 보고서의 한 내용이다.

한편 베이스캠프가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무안면의 중고생들이 교실 한 칸에 모여 사역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목요캠프가 열리고 있었다. 조병호 목사는 중고생들에게 “예수를 만나고 그 분 안에서 꿈을 갖고 그 꿈을 목표로 살으라”고 말했다. 시간이 거의 마쳐질 무렵 사역자들은 자기 짝꿍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강○○양(무안고 2)은 “항상 동네를 누비고 다니던 초록색 옷들이 사라지니까 너무 이상한 거 있죠. 동네가 너무 허전하고 조용하고...”라며 한시미션 홈페이지에 그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sup>111</sup>

당시의 소감을 아쉬움 가득 담은 글로 전한 여고생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을 사랑하여 섬겼던 한시인들의 영향력은 실로 컸으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변화된 그들이 또 다른 한시인으로서 섬기게 될 것이다.

## 마을잔치

마을잔치는 사역 마무리로서 마을 축제이자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므로 전(全) 마을 남녀노소 모든 분들을 초대하여 소찬(小餐)을 나누는 시간이다. 초기에는 마을잔치 알림을 위한 최고의 광고효과가 있는 마을 어르신들께 돼지 잡는 것을 부탁드려서 잔치를 열었지만, 근래 들어서는 비빔밥으로 메뉴를

<sup>111</sup> 한시미션, 『뿌리기 사역 3 (1999-2001)』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2-1-3).

바꾸어서 섬기고 있다. 주방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할꺼번에 500인분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뜨거운 여름 음식을 위한 불과의 사투(死鬪)를 벌이는 주방팀이 놀라울 뿐이고, 그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었다.<sup>112</sup>

잔치가 준비는 되어도 하객이 없는 잔치라면 얼마나 초라하겠는가. 8월 둘째 주 경에는 장마 후 태풍이 한두 개 꼭 지나가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많은 인원이 오신 상황에서 장대비라도 내리면 난감(難堪)한 것이다. 마을잔치로 섬김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비로인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1993년 8월이 딱 그랬다. 금요일 새벽부터 장대비가 퍼부었다. 그러기에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치지 않는 비로 말미암아 낙담이 되는 순간 찬양을 통해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사역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

“맑고 밝은 날 난 주 이름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난 주를 위해 살리.

그리고 뒤이어, 비 오는 날도 난 주 이름 찬양하겠네. 비 오는 날도 난 주를 위해 살리.” 감사의 적극적 고백은 노래 가사가 아닌 실제 상황으로 바뀌는 기적으로 나타났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다. 그분은 역전의 용사이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면승부밖에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11:6).

비가 온 후라, 갈아놓은 자리에는 빗물이 고여 있기에 어르신들이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는 앉을 수가 없었다. 조병호는 이리지도저리지도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닦기 시작했고, 모든 사역원들이 일순간 동참하여 물기를 닦아냈다. 그 모습을 본 어르신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령당해 있었다. 최악의 조건은 최고의 복음 전할

<sup>112</sup> 조병호,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 (서울: 통독원, 2012), 162-172.

기회가 된 것이다. 비를 조건으로 섬김의 질을 높여내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다.

그리고 준비된 음식이 순서를 따라 진설(陳設)되고 모두가 기쁨을 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지역 청년들의 방문과 소식을 통해 식사를 하던 시각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요. 이 모든 일의 계획과 진행자는 하나님이다. 무익한 종들은 그저 그분의 하신 일들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자리는 불편할지라도 음식과 사람냄새 풍기는 곳이기에 진짜 잔치집이다.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노래아닌가! 동양악기와 서양악기가 서로 어울어진 통(通)오케스트라가 멋진 공연을 한다. 그리고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3일간 노천성경학교를 통하여 배운 율동을 하는 마을 꼬맹이들의 무대이다. 각 마을 아이들의 발표회는 잔치의 꽃이다. 왜냐하면 그곳 무대에 서 있는 아이들이 바로 자신들의 손자 손녀들이기 때문이다. 어느 분인들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꿈나무들의 입에서 별가루처럼 쏟아져 나오는 노래는 어르신들께는 최고의 무대다. 아이들의 공연에 이어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어깨로 흥은 전달된다. 정한 시간을 아쉬워하며, 잔치가 끝날 무렵 사역원들이 모두 한 줄로 서서 문을 닫는 예절을 지켜 큰절을 올린다. 일주일간의 시간이 쏜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 영원을 위한 섬김은 바보짓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sup>113</sup>

이 한번의 잔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땀과 눈물로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볼 수 있다. 모든 순서가 진행되는 내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 한시산타

한시산타는 말그대로 한시인들의 선행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동이

<sup>113</sup> Ibid., 162-172.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몰래 섬기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각 가정의 형편을 소상히 살펴서 마지막 준비한 선물을 어느 댁에 드려야할지 금요일쯤이면 결정된다. 방문할 댁에 대한 지형지물과 사전준비를 마치고 밤에 선물을 조용히 갖다놓고 오는 것이다. 별것 아닌 물건이지만 믿음직한 섬김이 되도록 은밀하게 드리고 오는 것이다. 그 선물들은 라면 한 상자, 쌀 두어 말, 쇠고기 두어 근, 속내의 두어 벌, 안마기, 찜질기, 가정상비약 등등, 그리고 잔치 때 따로 준비해둔 과일과 떡 등이다. 늘 섬김에 있어서도 주는 입장이 아닌 받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은밀하게, 티나지 않게 주께 하듯 섬기는 사역이 한시산타이다.<sup>114</sup>

#### 언론을 통해 본 한시미션 생명뿌리기 사역

한시미션의 생명뿌리기 사역 이후 기자의 반응을 살펴보겠다.

먼저 국민일보 김규원 기자는 무교회지역을 선교하는 한시미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농어촌 무교회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한시미션(대표 조병호 목사)이 사역 10년만에 5천여명을 교회로 인도해 그 비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청년·대학생 자비량봉사자들로 구성된 한시미션팀의 전도비법은 뿌리기사역편지사역물주기사역의 3단계 전략에 있다. 매년 8월 무교회지역을 찾아가 「빛진자의 마음」으로 어려운 가정 몰래돕기와 경로잔치 등을 통해 그 지역 사람을 철저히 섬기고 복음의 씨를 뿌린다. 워낙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재미있어 참가자들은 한시미션의 뿌리기사역에 속 빠지게 마련이다.

1백50여명의 한시미션팀들이 지금까지 찾아간 곳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등 무교회지역 20여곳 90마을. 뿌리기사역이 끝나면 다음해 봄방학때까지 6개월에 걸쳐 편지를 교환하며 어린생명이 실족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라도록 기도한다.

<sup>114</sup> 조병호,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 (서울: 통독원, 2012), 180-182.



2월 봄방학때는 이들을 서울로 초청, 서울구경을 같이하며 본격적인 물주기 사역에 돌입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서울에서 큰 도전을 받고 신앙이 성숙돼 시골로 내려간다. 농어촌 복음의 머릿돌이 되어서.<sup>115</sup>

국민일보 김규원 기자는 한시미션이 무교회 지역에 복음을 들고 펼쳤던 사역이 농어촌에 있는 불신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머릿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계속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빗속에 흠뻑 적셔진 복음의 씨앗』이란 제목으로 한시미션의 여름 사역을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은 반응과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땅에서 공생애 기간을 보낸다면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까? 한 평생을 농사일에 시달리느라 손발이 짝 말라 장작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난하고 외로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 위로하지 않으실까? 그 촌노(村老)들의 쭉시는 뼈마디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지 않으실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보고자 농촌 오지를 찾아간 사람들이 있다. ‘생명 뿌리기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찾아간 한시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 ‘예절로 다가가,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열려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사역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경로잔치’를 시작으로 아이들 수보다 선생님 수가 더 많은 ‘노천성경학교’, 지역 교회가 참 오랜만에 딱 채워진 ‘수요찬양예배’, 집집마다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축호전도’, 지역의 중고생들을 초청해 복음과 꿈을 심어주는 ‘목요캠프’ 등을 펼쳤다… 한여름, 복음의 불모지에 뿌렸던 사랑의 씨앗에 적절한 때에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 날, 곧 싹이 나고 키가 커 가리라는 믿음, 이로써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한 가지

<sup>115</sup> 『한시미션 5천명 교회인도 화제』

[https://news.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1998030600002205\[2023.](https://news.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1998030600002205[2023.)

8. 17. 최종접속]

소망이다.<sup>116</sup>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의 전선에서 수많은 이들의 땀과 헌신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기자의 눈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 할 수 있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한 마을에 기쁨과 평화가 있으며, 한 지역이 놀라운 기쁨과 축제가 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오셨을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복음의 큰 그림을 그리는 한시미션이 어떻게 한 영혼을 대하는지를 볼 수 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하지 않을까! 복음이 흥왕했으면 좋겠다.

#### 4. 한시문화마당 다서연(茶書演)

한시 찾집사역( '한시 양일찾집'을 1999년부터 명칭 개칭)은 한시 물주기사역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하여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한시미션 10주년 기념대회(1998)인 '열음마당'을 계기로 한시미션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계획 속에서 1999년부터는 '한시문화마당 다서연'(茶書演)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한시문화마당은 한시인들을 비롯한 한시미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동역자,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로 매년 한시 물주기사역이 있기 전 2월 초에 열려지고 있으며, 사진 전시와 영상매체를 통하여 한시미션의 여러 가지

<sup>116</sup> 『빗속에 흠뻑 적셔진 복음의 씨앗』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128460>[2023. 8. 12. 최종접속]. 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 11의 전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역들을 소개하고,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 동역 할 사람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했다.<sup>117</sup>

회차	년도	장소
제1회	1988년 12월	광장동 레마의 집
제2회	1990년 2월	광장동 레마의 집
제3회	1991년 2월	광장동 레마의 집
제4회	1992년 2월	대방동 가스펠 하우스
제5회	1993년 2월	대방동 가스펠 하우스
제6회	1994년 2월	혜화동 돌봄때의 춤
제7회	1995년 2월	대방동 가스펠 하우스, 명동 글로리아
제8회	1996년 2월	대방동 가스펠 하우스, 명동 글로리아
제9회	1997년 1월	삼성동 섬유인 클럽
제10회	1999년 2월	송실대 한경직 기념관 (한시문화마당 다서연)
제11회	2000년 2월	송실대 한경직 기념관 (한시문화마당 다서연)
제12회	2001년 2월	송실대 한경직 기념관 (한시문화마당 다서연)
제13회	2002년 2월	송실대 한경직 기념관 (한시문화마당 다서연)

< 표 5 - 한시문화마당 다서연 ><sup>118</sup>

## 5. 한시물주기 사역

### 한시물주기사역 (매년 2월 넷째 주, 3박 4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외고에서 시작한 52주의 사역도 어느덧 일년이 되었다. 52주 사역이 끝나는 마지막 주간에 외고 아이들을 서울에 데려왔다. 지난 여름 생명뿌리기 사역에 동참했던 이들이 서울 안내원으로 자원하여 함께 했다. 한시편지사역을 통해 서로 간의 정감을 나누고 있었다. 이 한시물주기사역은 ‘가서’가 아닌, ‘데려와서’ 서울에서 80여 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이다. 여름에

<sup>117</sup> 한시미션, 『한시미션 소개』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1)

<sup>118</sup> Ibid.

생명뿌리기 사역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이라면, 겨울의 3박 4일은 뿌린 복음의 씨앗에 물주는 시간이다.<sup>119</sup>

1988년 8월 둘째주 한주간 동안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에서 생명뿌리기사역을 감당한 이후, 그해 12월에 신안면 외고리의 꼬맹이 33명을 서울로 초청하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과 장신대 기숙사에서 일대일(선생님과 꼬맹이가 일대일로)로 함께 숙식하며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한시물주기사역의 시작이었다. 여름 농촌 생명뿌리기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 다음 해 봄방학을 이용해 사랑으로 물을 주는 한시물주기사역을 실시하는 것이다.

편지사역이 끝나갈 즈음, 그러니까 봄방학 기간 동안 지난 여름에 만났던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한다. 이 사역은 ‘데려와서’ 할 수 있는 사역으로, 여름 생명뿌리기사역의 연장선에서 ‘한시물주기사역’ 이라고 명명한다.<sup>120</sup>

한시물주기사역은 생명뿌리기사역을 통해 만난 꼬맹이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3박 4일간 기독교 생활 문화 교육을 하는 사역인데, 사역자들은 꼬맹이들과 1대1이 되어 그들의 마음에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며 섬기게 된다. 한시물주기사역은 생명뿌리기사역을 통해 뿌려진 씨앗에 사랑으로 물을 주는 사역인데, 꼬맹이들이 예수그리스도를 평생 잊지 않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다.<sup>121</sup>

사역자들은 꼬맹이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물을 주기 위해 몸부림치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조병호는 한시미션이 감당하고 있는 한시물주기사역에 임하는 사역자들의 자세와 역할을 투우사에 비유하곤 한다.

<sup>119</sup> 조병호,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 (서울: 통독원, 2012), 84-88.

<sup>120</sup> Ibid., 84-88.

<sup>121</sup> Ibid., 84-88.

투우사가 빨간천을 흔들며 소를 유인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옆으로 비껴나가듯, 꼬맹이들을 사역자 선생님들 자신에게로 달려오게 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역이 한시물주기사역인 것이다. 사랑과 섬김으로 꼬맹이들의 마음을 열고 열려진 꼬맹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놓는 것이다. 꼬맹이들과 함께 하는 일정 역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장소, 그들의 마음 밭에 ‘예수’ 두 글자를 새겨놓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기독교 생활권이 아닌 무교회지역이라는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마을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전통문화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한시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소개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있지 못한 채 지난 여름날에 있었던 추억으로만 남아 있을지 모른다. 한시물주기사역은 이러한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3박 4일 동안 준비된 사역자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접하게 한다. 한 마디로 지난 여름에 어린이들 마음속에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다.<sup>122</sup>

한시물주기사역은 사역자들이 손에 땀이 흥건해지도록 어린이들과 일대일로 손을 잡고 다니면서 그 어린이들에게 진정 받음직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를 조심하여 이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서울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국회나 방송국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서울의 여러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배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한시 물주기사역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들은

---

<sup>122</sup> Ibid., 84-88.

한 사람의 어엿한 신자가 되어 있으며 마을에 돌아가서도 멀리 떨어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복음의 머릿돌로 자리잡아가게 된다.

다음 표는 1회인 1988년 12월부터 13회인 2002년 2월까지의 한시물주기사역에 대한 자료를 전제하에 정리했다.

회차	년도	장소 및 참여 인원
제1회	1988년 12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장신대 기숙사(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꼬맹이 꼬맹이 33명 참석)
제2회	1990년 2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경남 산청군 차황면 철수리 꼬맹이 25명 참석)
제3회	1991년 2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경남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 꼬맹이 25명 참석)
제4회	1992년 2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경남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꼬맹이 27명 참석)
제5회	1993년 2월	여전도회관(경남 진양군 수곡면 사곡리 꼬맹이 33명 참석)
제6회	1994년 2월	여전도회관(경남 고성군 대가면 세동리 꼬맹이 51명 참석)
제7회	1995년 2월	감리교 여선교회관(강원 삼척군 하장면 역둔리, 경남 산청군 신안면 창안리, 전남 장성군 북일면 운곡리, 충북 중원군 주덕리 대덕리, 제주 북제주 구좌읍 평대리 꼬맹이 58명 참석)
제8회	1996년 2월	여전도회관(전북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전남 순천시 승주읍 유동리 꼬맹이 58명 참석)
제9회	1997년 2월	여전도회관(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꼬맹이 62명 참석, 태국꼬맹이 4명 참석)
제10회	1999년 2월	여전도회관(경남 합천군 가회면 일대 꼬맹이 59명 참석)
제11회	2000년 2월	여전도회관(전북 남원시 아영면 일대 경남 함양군 백전면 일대 꼬맹이 80명 참석)
제12회	2001년 2월	여전도회관(경남 함양군 유림면, 휴천면 일대 꼬맹이 53명 참석)
제13회	2002년 2월	여전도회관(경남 합천군 무안면 일대 꼬맹이 50-60명 참석 예정)

< 표 6 - 한시물주기사역 역사 ><sup>123</sup>

지난 13년 동안 650여명의 무교회 지역 꼬맹이들을 서울로 데려와 700여명의 사역자들이 물주기사역을 진행해왔다. 실로 엄청난 일이다. 매 해 거르지 않고 여름과 겨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역들을 유지해왔다. 참여했던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과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행복해했고, 예수를 만났으며, 복음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토록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다름 아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의 순종과 헌신이다.

---

<sup>123</sup> 한시미션, 『한시미션 소개』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1)

## V. 결론

### 결론과 제언

성경과 전도는 마치 실과 바늘 같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요1:1)이고, 전도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구원의 길이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道),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의 도(道)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다. 이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져야 하고, 또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과 전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라고 외치며 성경을 1천 회 이상 통독했던 조병호 박사는 2022년 ‘10분에 성경 전체 이야기’ 를 내놓았다. 성경학자와 역사학자로서만이 아니라 철저히 전도자였던 그는 27년간 무교회지역 전도의 현장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 1년만이라도 ‘한 영혼 사랑’ 을 실천해보겠다는 생각과 복음에 대한 긴박성이 27년간 한시미션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무교회 지역에 뿌리기 사역과 물주기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 한시미션의 모든 사역의 정신은 성경에서 나왔다. 한시(限時) 동안 구별되어 헌신된 나실인 정신(민6:1-21),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자비량 방식(행18:3; 20:34-35; 고전9:7), 복음에 대해서 빛진자된 의식(롬1:14,15), 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중임을 자처하며 스스로 권리 포기(롬1:1),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섬기는 받음직한 섬김(롬15:31), 이웃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들러리의 기쁨(요3:29-30),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무익한 종의 고백(눅17:10)이 그것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롬10:17). 21세기 보이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오직 그분이 선물로 주고 가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알고 믿을 때 온전한 순종이 나온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빛진 자로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다. 통(通)성경과 무교회 지역의 전도관계를 연구하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영혼들을 사랑하여 전도로 이어진 것을 보았다. 삶의 자리에서 녹여낸 한 영혼 사랑이 가능했던 것도 성경통독이었고, 한시미션을 가능케 했던 것도 성경통독이었다. 성경통독 없는 한시미션과 한시미션 없는 성경통독은 생각할 수 없다. 그만큼 깊게 영향을 주었고, 그로인해 통(通)성경의 오늘이 가능하게 되었다.

통(通)성경의 최종 목적은 통(通)의 방법론으로 모든 민족의 부모들이 모든 성경을 자녀에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의 이야기를 모든 민족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 66권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고, 잘 모른다.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전체 스토리에는 너무 약하다. 그러다보니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청년만 되면 교회를 떠난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읽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있어서 통(通)의 방법론으로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아는 자는 복음의 씨를 뿌릴 수밖에 없다. 성경을 원스토리(One Story)로 읽다가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전도할 수밖에 없다.

## 참고 문헌

### 국내 서적

- 김지찬, 『성경과 팬데믹』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 노진준, 『요한복음 1-4장 읽는 설교 1』 서울: 죠이박스, 2018.
- 박인식, 『개혁주의 복음전도와 양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부, 2010.
- 이석우, 『基督教史觀)과 歷史意識』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이영훈, 『MTS 전도자 훈련 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2.
- 이재철, 『요한과 더불어 - 첫 번째 산책』 서울: 흥성사, 2004.
- 조병호,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 통(通)독 통(通)구구단』 서울: 통독원, 2023.
-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통이다 LET' S 通』 서울: 통독원, 2007.
- 조병호, 『통(通) 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한국기독교청년 학생운동 100년사 산책』 서울: 땅에쓰신 글씨, 2005.
- 조병호, 『3시간에 끝내는 성경 전체 이야기』 서울: 통독원, 2023.
- 하도균,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전도 바이블』 고양: 소망, 2023.

###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 김남준, 『예배와 감격이 있는 열린교회』 경기도 안양: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2003.

- 김성천, 『총동원전도를 통한 교회의 활성화 방안-인동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신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9.
-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교수학습에서의 이야기의 재발견』 신학과 세계 제 75호  
 (2012).
-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2-2-1.
- 성경 통독원, 『성경통독 관련자료 I』 1989~2000년.
- 이정희, 『교회 교육으로서 역사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2.
- 이치우, 『총회 전도 정책 자료집-전도, 교회개혁, 교회성장 관련』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국내전도국, 2010.
- 최동규, 『한국 교회의 전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서울: 목회와 신학, 2009.
- 한시미션, 『물주기사역 1 (1988-1999)』 사단법인
- 한시미션, 『뿌리기 사역 1 (1988-1994)』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2-1-1.
- 한시미션, 『뿌리기 사역 3 (1999~2001)』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2-1-3.
- 한시미션, 『생명뿌리기사역 관련자료 II』 1988~1991년 사역자료.
- 한시미션, 『한시미션 소개』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별첨자료 1.
-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자료집, 2007.

## 번역서적

- 리처드 헤이스, 엘렌 데이비스,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 박규태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21.
- 샘 와인버그, 『역사적 사고와 역사교육』 한철호 역, 서울: 책과 함께, 2006.
- 요한 하위징위, 『역사의 매력』 이광주 역, 서울: 길, 2013.
- 콜린 G. 크루즈, 『틴데일 신약주석 시리즈 4 요한복음』 배용덕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Will McRancy Jr. 『개인 전도의 기술: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예수 전하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 웹사이트

『빛속에 흠뻑 적셔진 복음의 씨앗』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128460>

『사영리란 무엇인가?』 <https://www.gotquestions.org/korean/Korean-Four-Laws.html>

국제전도폭발 한국본부 (<http://www.eekorea.org/index.asp>)

『성경 66권을 덩어리째 읽어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4694>

『서구식 성경 읽기만으론 주의 뜻 이해 못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1278832>

『역사』 <https://ko.wikipedia.org/wiki/%EC%97%AD%EC%82%AC>

『예수님의 전도』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504014>

『우리 모두 '통'합시다, Let's Tong』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3674153444>

『통독, 성경의 핵심을 후손에 전승하는 지름길』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4686>

『통하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D%86%](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D%86%8B+%ED%95%98%EB%8B%A4#view_left_top_id)

[B5+%ED%95%98%EB%8B%A4#view\\_left\\_top\\_id](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D%86%8B+%ED%95%98%EB%8B%A4#view_left_top_id)

『한시미션 5천명 교회인도 화제』

<https://news.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199803060000>

02205

『N세대들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 말씀의 잔치 중고생 성경통독캠프 현장 스케치』

<http://www.christianwr.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

## 부록 1

1. 계승과 도전의 시기(1884-1954)
  - 1) 1885년의 청년들
  - 2) 청년 자리 만들기
  - 3) 105인 사건과 한국 인권운동의 세계화
  - 4) 3·1 독립운동과 기독교 학생의 연합운동
  - 5) 기독교청년과 농촌운동
  - 6) 일제의 한국 기독교 분열책동, 신사참배
2. 분열과 태동의 시기(1945-1960)
  - 7) 해방, 단절과 계승의 시작
  - 8) 해방 후 10년, 기독교청년들의 수난시대
  - 9) 한국기독교학생운동과 세계기독교학생운동의 연대
  - 10) 기독교 학생 민주화 운동 기반 : LMC 프로그램
  - 11) 한국 IVF의 설립과 영국 복음주의 학생운동
  - 12) 한국 CCC의 설립과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네트워크
3. 민주화와 복음화운동의 시기(1960-1987)
  - 13) 4·19, 학생운동의 점화와 군부정권의 등장
  - 14) 1964년, 민주화운동과 복음화운동 시동
  - 15) 1966년, 기독교학생운동의 협력기관들 설립
    - 한국기독교자교수협의회와 국가조찬기도회
  - 16) 한국기독교학생운동의 세계기독교운동 수용과 발전
    - KSCF 탄생과 학생사회개발단운동
  - 17) 기독교 학생의 노동운동과 전태일 분신사건
  - 18) 기독교 학생의 전도운동과 한국 민족복음화

- 19)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학생의 선거운동
- 20) 기독교학생의 새로운 선교 약제, 인권운동
- 21) 민청학련사건과 유신정권
- 22) 민청학련사건과 기독교학생
- 23) 민청학련사건과 세계의 반응
- 24) 한국 기독교학생의 교인전도훈련, 엑스플로'74
- 25) 엑스플로 '74와 한국 교회 성장
- 26) 기독교학생들이 진보 교회를 통해 견인한 민주화운동
  - EYC 창립과 교회 구심력으로 계승되는 진보기독교학생운동
- 27) 기독교학생의 보수 교회 지성신앙화 자극
  - 한국 IVF의 캠퍼스토착화운동과 문서선교운동
- 28) 기독교학생과 YH 사건.
- 29) 기독교학생과 YWCA 위장결혼사건
- 30)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기독교학생
- 31) 80 세계복음화대회, 준비와 한계
- 32) 1982년의 기독교학생들
- 33) 정체성 논쟁, 진영화운동의 필연적 결과
- 34) 정체성 논쟁과 진보기독교학생 진영의 분열
4. 통일연합과 해외선교운동의 시기 (1987- )
- 35) 보수 진영 기독교학생의 정체성 혼란 - 복음주의 그룹 형성
- 36) 복음주의 학생들의 사회참여
- 37) 1987년의 기독교학생들
- 38) 1980년대 진보기독교학생의 통일운동
- 39) 1980년대 보수기독교학생의 해외선교 연합운동

#### 40) 시민운동의 등장과 기독교학생운동



## 부록 2

## 10분 스토리

10분에 성경 전체 이야기

By. 통조박사 조병호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처럼 성경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노아 홍수심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리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흉년에 100배 결실을 거둔 이삭, 열두 아들로 열두 지파의 기둥을 세운 야곱, 이렇게 족장 세 사람의 가나안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민족을 만들기 위해 입애굽한 이야기입니다. 400년 후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 합니다. 출애굽의 표면적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선교의 꿈인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를 비롯한 제사장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이며,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제사장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세대 이야기이고, 신명기는 만나학교 졸업식 설교입니다. 만나학교 졸업생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이며,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나라 1단계 흉년 징계와 2단계 수탈 징계 가운데 진행된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이고, 룯기는 사사시대 제사장나라 교육 성공사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세대를 탄생시켜 제사장 나라를 꽃피웁니다.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은 왕정 500년 동안 왕과 선지자 대립의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세 번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나라 충성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연 다윗의 여러 시편과 하나님의 자랑, 하늘보석 읊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건축,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를 남깁니다. 솔로몬 사후 남북 분열왕조 200년 동안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의 외침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요나의 3일 기적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의 설득에도 끝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북이스라엘이 B.C.8세기 앗수르에 멸망합니다. 이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과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합니다. 150년 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선지자가 500년 왕정 평가를 포괄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제사장나라 징계 3단계인 바벨론 포로 70년의 네 가지 의미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을 말하며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재건세대에게 하나님의 미래 선물, 역대기가 주어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남유다 포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함으로 유대인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환상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바벨론제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제국은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와 함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함으로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아말렉족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에스터의 파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어 산헤드린 공회를 설치하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함으로 제사장나라 재건을 이룹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운 지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의 사랑 고백과 엘리야를 보내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제국들이 변동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왕조 때에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 하스몬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80여 년동안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하므로 제사장나라 법을 어깁니다.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대는 로마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이때 로마는 에돔족인 헤롯 가문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함으로 성전을 로마의 통치 도구로 전략시킵니다.

바로 이때 B.C와 A.D 분기점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목자들의 기쁨 속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론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비밀 언덕이 되시며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공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신 후 1차 산헤드린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형틀이자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이므로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길의 휘장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후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열두 사도들이 제자 시대를 열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며 2차, 3차,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편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동행하게 되어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년 후 안디옥 교회에 생긴 할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이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구원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와 같은 사랑받는 형제로 결의합니다. 이후 바울팀은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며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바울팀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로마를 거쳐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회의 당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로마 천부장의 협조로 5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공회원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이 거칠어지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활 신앙을 고백함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분열시키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보호 속에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다음 날 로마 총독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2년간 구금됩니다. 이후 바울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의 재판을 받던 중, 산헤드린 공회의 살해 위협을 피하려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며 죄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론인 에베소서, 기독교론인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써 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A.D.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마제국은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로마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바울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써보냅니다. 바로 이때 순교를 눈앞에 둔 복음 1세대들이 복음 2세대들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를 남깁니다. 이는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복음 1세대로, 로마 대화재 이후 30여 년 동안 더 살아남아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때 요한일·이·삼서를 기록하여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 2세대가 이끄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며 주님 속히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재림 약속을 전하며 계시록 이야기를 끝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21세기 신앙부흥운동을 곱셈하며 교회 부흥운동을 곱셈할 것입니다. 아멘”

### 부록 3

성경통독의 특징 12가지

1.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봅니다.

익히 들어왔던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조망해 볼 때 어떠한 맥락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고, 자주 읽혀지는 말씀에 가려 등한시되었던 내용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66권의 성경 전권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합니다.

2. 성경을 '쉽게' 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면서도 어렵고 힘든 책, 멀리 있는 책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 성경을 아는 데에 치른 대가가 적기 때문입니다. 성통은 성경을 가까운 책, 친근한 책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3.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사건의 세세한 상징성과 지엽적 의미에 집착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 내려갑니다. 노아 홍수사건의 경우, 비둘기, 40일 등의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이 사건 전체를 계획하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속 터지는 사랑, 뼈 깎는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서로 마음을 미리 알고 꿰뚫어야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이해가 가는 법입니다. 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는 역사와 세계를 보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4. 성경을 시대순으로 재구성하여 읽습니다.

열왕기상하에 맞추어 예언서를 보고, 사도행전에 맞추어 서신서들을 살펴 보면서 단편적으로 알던 말씀들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짚어갑니다.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썼을 시점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함께 접하면 당시의 생생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는 백발이 성성한 모세

어른이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기는 하되 그곳에 채 가지 못하고 한 마지막 설교이고, 갈라디아서는 바울 어른이 화나서 급하게 쓴 것이라는 것, 우리가 즐겁게 찬송으로 부르는 시편의 노래가 위험과 궁지에 몰린 다윗의 마음을 확정하기 위해 지은 시라는 것을 먼저 알면 성경의 내용에 좀 더 깊숙이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관점으로 봅니다.

이는 세상이 원하는 지식의 관점으로 보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며, 오히려 이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탁월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친로마주의자 또는 친유대주의자로 몰아 세우려는 음모 앞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명쾌한 논리를 내세우셨던 우리 주님의 지혜를 말입니다.

6. 성경을 언약과 성취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기필코 이루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령 창세기의 언약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기 전에 그것이 성취되는 장면을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월요일에 듣고, 화요일에 200만명으로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보게 됩니다.

7. 구체적인 역사의 시공간 내에 살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만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모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삶의 모습은 유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성경 속에 잠재워 두지 않고 말씀을 통해 만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에 성경의 인물들이 각기 어떠한 공헌과 기여를 하며 자신의 특권을 어떻게 사명으로 바꾸어 내는지 살펴봅니다. 이 물질만능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우선 익히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에 수동적 동의만 하며 살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이 앞으로의 나의 고백이 되도록 삶의 모형을 변경하고 개선해 가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인생의 여정을 많이 지나오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의 모델을 성경에서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잣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바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8. 숲과 나무를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우뚝 선 나무도 보지만 양지녘 가랑잎 아래 가려진 다메섹 엘리에셀 같은 인물도 봅니다. 바울과 같은 최고의 사도에게 필요했던 두기고도 봅니다. 인물, 지명, 사건, 주제의 다양성을 접해 보고 그것들이 어떠한 통일성으로 묶여지는지를 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성통의 목적이 '신학'은 아니지만 '신앙을 위한 신학'에 대한 안목을 가지려 합니다.

9. 이론으로만 맴돌고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이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

성통을 통해 사고와 관념 속에 머물던 신앙이 가슴에 전해지고 손과 발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섬김, 순종, 선교 등의 용어가 상투적 용어로 남아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쉽게 지나치는 개념 하나하나의 의미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획득되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신자들에 의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실천 대안을 모색합니다.

#### 10.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 바로 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헛된 대상을 좇아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믿음을 기다리시는지 알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삶은 믿음의 문제이고, 그것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태껏 덮어놓고 믿었다면 이제는 열어놓고,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11.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간구로 청종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허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어 보려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자세로 임합니다. 이 일주일간은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놓고 '종이 들겠습니다. 말씀하소서.'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2. 성경통독을 편협되거나 한정된 시각으로 성경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부요하고 측량치 못할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권을 읽는 여정이 편안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시사해 줍니다.

사랑은 앎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다 더 알아 가셔서 성경통독사경회가 끝나갈 무렵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 부록 4

조병호 목사님께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보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5분을 못참고 자세를 교정하며, 졸음을 참아가며.... 때론 준비된 마음으로, 때론 돌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어찌하였거나 버티길 잘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준비된 은혜가 풍성할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무수한 선진들 만큼이나, 목사님의 직접적인 삶의 자취들을 들을 때 벽차오르는 감동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주어지는 3분의 시간을 채워 쓰러져 있어야 했던 연약한 제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신 주님!

그 주님 은혜 헛되지 않게 열심히 살 것입니다. 목사님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능력의 말씀, 그리고 일주일간 배우고 본 한시인들의 정신,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p.s. 저도 한시인이 된다면 내년에 또 뵈 수 있겠죠?

97. 8. 23. 토.

김 ○○드림

## 부록 5

목사님께

Love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영접하게 된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97. 8.24 번동 허○○

## 부록 6

“ 들어가면서

오늘의 세계를 개괄, 상식적으로 정리하여 답을 수 있는 단어는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이기주의일 것입니다. 한편, '빛진 자 의식'이라는 용어는 시들어가는 어휘들 중의 하나로 되어 버렸으며, 이 시대에 있어서 이 개념은 몸 앓이를 넘어서 거의 빈사상태에까지 놓여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빚어 놓은 세태와 관행은 '크고, 화려하며, 빠르고, 편리한 것'이면 최고라는 가치관에 함축되어 나타납니다. 때문에 21세기를 꿈꾸어야 할 젊은이들조차도 보편타당할만한 가치를 붙잡지 못한 채 삶의 좌표설정을 상실하여, 진취성을 잃고 퇴영화되어 세상방향의 선례를 힘없이 뒤쫓고 있습니다.

한시라 이름한 우리 또한 여기서 빚겨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되어 한시적으로나마 작지만 거룩한 꿈을 품고, 아주 매력없어 보여질지도 모를 '종'이란 용어를 붙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1년중 1주간 168시간 이란 한시적 기간이지만 주님 쓰시기에 편한 종 되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 주께서 원하시는데로 어른공경 한 번 못해 보며 코흘리게 어린아이 한 번 못안아 주고 복된 소식 한번 힘껏 외쳐보지 못했지만 그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열심내고자 함으로 말입니다.

어찌보면 일주일만 떼어 그리하는 것이 위선적이며 유별낸다 통박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한번의 땀흘리는 진실의 경험이 이후 더 확대 재생산되길 바라는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별로 잘나보일것이 없는 한시인들이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복음으로 상대적 혜택을 듬뿍 움켜쥔 자들이기에 일곱마을앞에 빛진 자임을 인식함으로 쟁기를 잡습니다.

쟁기잡은 손의 열심이, 활동적 기질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이길 거부하며 오늘의 '나됨'을 위해 값비싼 댓가를 치루신 분의 사랑이 그 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혜택의 울타리에 길들여진 채 섬김의 인격으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네 모습들을 사역앞에 노출시켜 봄으로 차후 쓰시기에 편한 종들로 우리의 격이 상향조절될 기회이길 바랍니다.

또한 한시의 '틀'을 사역의 한복판에 들어내므로 울타리 내의 관계 발전은 울타리 밖을 향한 밀거름적 모판이 되어야 됨을 확연히 색칠할 것입니다.

이렇게 옷깃을 여민 한시에게 주께서 사곡땅의 백성 600여분을 맡기셨습니다.

빛되신 분의 주인됨을 등 돌린 채 꺼진 불뜸사이에서 소외라는 말뚝을 매지 못한채 사시는 분들을 애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애타는 열심이 당신의 빛으로 그들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을, 한시를 내세우셨습니다.

산다랭이 논밭을 일구시는 사곡분들, 그분들의 갈라지고 굼어진 손밭을 어루만지는 위로도 빼놓지 않겠지만, 생명본질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시이기에 오히려 50여 날의 무릎꿇음과 열려진 주머니를 묶어 원액으로 쏟아 부을 것입니다.

92년 여름 한주간 사곡땅에서 마주치는 눈빛 하나에도 겸손하고 싶습니다.

한시인 조병호 ”

## 부록 7

### 1) 한시장단모임

제 1 차 : 92. 3.10 봉천제일교회 / 한시장단의 자세와 준비해야 할 마병

제 2 차 : 92. 3.20-21 백주년기념관 / 조별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의 준비계획

제 3 차 : 92. 4. 2 말씀서예 / 조별 준비상황확인

제 4 차 : 92. 4.16 현대미술학원 / 조별 준비상황 점검

제 5 차 : 92. 5.15-16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 1단계 준비 마무리 점검

제 6 차 : 92. 6. 9 봉천제일교회 / 한시장단의 책임

제 7 차 : 92. 6.19 봉천제일교회 / 한시장단이 낮은자로서의 감당하여야 할 일

### 2) 전체 준비 모임

제 1 차 : 92. 3.24 봉천제일교회 / 기독청년의 헌신의 모습

제 2 차 : 92. 4.24 봉천제일교회 /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제 3 차 : 92. 5.28 봉천제일교회 / 사역의 중요성

제 4 차 : 92. 6.26-6.27 산곡기도원 / 사역에 임하는 우리가 해야할 일

제 5 차 : 92. 7.16-7.17 산곡기도원 / 사역자가 지켜야 할 세부 수칙

제 6 차 : 92. 7.31-8. 1 산곡기도원 / 전도유형별 사례교육

제 7 차 : 92.8.7-8.8 산곡기도원 / 최종마무리

### 3) 사역지 답사

제 1 차 : 92. 4. 3- 4 ; 조병호, 용○○, 김○○

제 2 차 : 92. 6.17-18 ; 조병호 우○○, 용○○, 김○○

제 3 차 : 92. 7.29-30 ; 조병호, 우○○, 용○○, 한○○, 박○○, 조○○, 이○○,  
김○○

### 기타준비

1) 사역자 유니폼제작 (100만원상당) : 어느 집사님

2) 사역마을 각 가정을 위한 비상 의약품(250 만원 상당): 어느 집사님

3) 차량준비 ; 한시선교회 승합차 2대, 한시인승용차 2대 외, 승합차 1대.

#### 예산편성

1) 기본원칙 : 참석사역자의 자비량 충당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지출내역 : 경로잔치, 마을축제, 교육교재비, 식비, 기타 1,500만원

3) 수입내역 : 자비량사역비 1,000만원, 외부의 손길 500만원

## 부록 8

한 시 선 교회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역대상29:5)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만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손님들에게는 삼천원의 식사를 미안한 마음으로 대접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만나 뵙는 우리의 주님께는 단 천원짜리의 식사를 당연한 듯이 대접하고 맙니다. 실상은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 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큰 것도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돈은 아주 작은 것도 무척 커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것을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을 드리고 그만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당위성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혹시 손과 발만의 헌신을, 혹은 시간만의 헌신을 다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자들에게 부분적인 헌신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뛰는 손과 발들의 주머니가 열리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한시는 최대한의 것을 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의 기쁨을 만들었고 이는 곧 작은 한시에게는 유일한 기쁨이었으며, 크신 주님께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나타난 주로 말미암은 재물을 즐거이 주께로 돌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의 역사가 여름날의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고 있는

한시인들에게도 일어나 그 이길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되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 부록 9

제1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 학습목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한다.

\* 본문말씀: 창1:1, 요1:1-3

들어 가는말: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구와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운행되어질까요?

\*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알아 봅시다.(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나요?)

1. 온 우주와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나요?(창1:1, 창 1:26-28)
2.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롬1:18-25)
3.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이야기 해 봅시다.

\*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 1) 언제 도우실까?

기도할때 (롬8:16-27) \*26절

위기때 (눅21:14, 15)

어려울때 (시 50:15)

- 2) 어떻게 도우시나?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약5:15~18) \*기도하는 법 지도 (주기도문)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 37:3-7)

- 3)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눈동자와 같이 (신32:10)

사람에게 필요한 것 (시 124:1-5)

제2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 학습목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왜 타락했는지 알고, 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한다.

\* 본문말씀: 창2:7, 3:6, 롬5:12

들어가는말: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나무, 산, 돌에 빌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없을까요?

1.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창1:26,27, 창2:7)
2. 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창2:16, 17, 창3:6)
3.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 (창3:1-5)
4. 사람의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롬1:18-32, 약4:17)
5.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일까? (창3:19, 롬6:23)
6.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은 없을까?(롬5:8)

제3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 학습목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를 믿게 한다.

\* 본문말씀: 요3:16, 요5:24

1.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으며 어떤 분인가요?
  - 1) 하나님이 보내심 (요17:3)
  - 2) 하나님의 아들(요3:16, 17)
  - 3)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행2:36, 4:11-12)
2.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 1) 이 땅에 오심
  - 2) 기적을 행하심

3) 십자가에 죽으심

4) 부활하심

5) 하늘로 올라가심

6) 다시 오실것임

\* 사도신경

3.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요3:16)

2) 죄를 멀리하고 회개한다. (행11:8, 롬2:4-5, 눅15:7, 10)

제4과. 이렇게 삽시다.

\* 학습목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한다.

\* 본문말씀: 대하7:14, 요15:7, 행17:11

들어 가는말 : 사람은 살아 있으면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요소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것과 기도와 예수님 믿는 바른 생활을 강조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섭취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딤후3:16, 벧전2:2)

2.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호흡할까요? (롬12:12, 시91:14)

3. 언제 기도해야 되나요? (빌4:6, 약5:14, 단6:19f, 행 3:1)

4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약2:5, 램33:3)

5.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엡6:1-3, 요15:12, 출20:1-17)

\* 십계명

## 부록 10

## 한시 선교회 여름 사역 성경 암송 구절

1.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8-9)
2.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7)
3.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드 행전 16:31)
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5.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6.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것ियो. (요한일서 1:4)
7.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8.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9.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4)
10.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 후서 4:2)

11.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5-6)

12.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29)

13.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14.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함이라. (디모데 후서 2:3-4)

15.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

## 부록 11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땅에서 공생애 기간을 보낸다면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까? 한 평생을 농사일에 시달리느라 손발이 딱 말라 장작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난하고 외로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 위로하지 않으실까? 그 촌노(村老)들의 쭈시는 뼈마디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지 않으실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보고자 농촌 오지를 찾아간 사람들이 있다.

‘생명 뿌리기 사역’ 이라는 이름으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찾아간 한시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1988년부터 매년 여름 8월 둘째주,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해오고 있는 한시미션(대표 조병호 목사)에서는 8월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뿌리기 사역을 실시했다. 그들이 찾아간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은 가구수가 600여 호, 총 인구수는 1,200명. 젊은이들이 거의 다 떠나버리고 노인들만 남은 전형적인 한국 농촌 지역이다.

이곳을 찾아간 사역자는 엄마를 따라와 주방 일을 도왔던 중학교 3학년 학생에서부터 “한 영혼 귀함을 다시 깨닫고 싶다” 며 사역에 참가한 57세의 목사까지 모두 200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했으며 총 70여 개의 다양한 교회에서 교파를 초월해 모였다. 이들은 푸른색 티셔츠를 입고 5박 6일간 ‘종’ 입을 자처하면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했다. 10년 된 폐교(봉발초교)에 머물면서 쏟아지는 비도 마다하지 않고, 씻는 것도 포기한 채 뛰어 다니는 사역원들은 잘 훈련된 예수님의 군사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무작정 “예수천당 불신지옥” 을 외치는 방법은 유교와 불교가 뿌리박힌 이곳에서 적절치 않기에 ‘예절로 다가가,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열려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을 사역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경로잔치’를 시작으로 아이들

수보다 선생님 수가 더 많은 ‘노천성경학교’, 지역 교회가 참 오랜만에 꼭 채워진 ‘수요찬양예배’, 집집마다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축호전도’, 지역의 중고생들을 초청해 복음과 꿈을 심어주는 ‘목요캠프’ 등을 펼쳤다.

사역 때 있었던 사건 하나. 수요일 밤 찬양예배가 드려졌던 연화교회에서는 마룻바닥이 움푹 내려 앉았다. 오래된 건물이 갑자기 몰린 400여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 처음에 교회에 가자고 하면 안 간다고 거부하던 사람들이 정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고 한 번 와보자는 셈치고 모인 수가 사역자들 외에 200여 명이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난생 처음 교회 문턱을 넘은 자들이었지만 땀과 눈물, 찬양과 기도의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 연화교회의 장영춘 목사는 “너무 오래된 교회를 수리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가보다” 며 오히려 교회가 오랜만에 가득 채워진 것을 기뻐했다.

조병호 목사는 사역을 마치며 “우리가 섬기고 있는 도시 교회도 차고 넘쳐야 하지만, 아울러 영현면의 교회들도 차고 넘쳤으면 합니다. 사실 현재의 도시 교회들은 농촌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채워진 것이기에, 도시교회는 농촌 교회에 빛을 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음에 빛진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꼭 해야 할 일로 여기며 기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이번엔 200명이지만, 곧 2,000명, 20,000명의 도시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시골 노인들을 섬기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는 꿈을 밝혔다.

한시미션의 농촌뿌리기사역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여름에 만났던 아이들과 6개월 동안 편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며 다음해 2월 봄방학 때 그 아이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꿈을 심어주는 ‘물주기사역’ 을 이어나간다. 한여름, 복음의 불모지에 뿌렸던 사랑의 씨앗에 적절한 때에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 날, 곧 싹이 나고 키가 커 가리라는 믿음, 이로써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한 가지 소망이다.”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Byungho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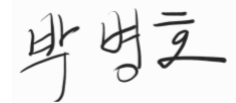
Place and Date of Birth: Mungyeong-si, South Korea, Feb 9, 1972

Parent`s Names: Bumsoo Park and Jongmae Kwon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Sanbuk High School</b> 560, Geumcheon-ro, Sanbuk-myeon, Mungyeong-si, Gyeongsangbuk-do, Korea	Diploma	Feb 09, 1990
Collegiate: <b>Calvin University</b> 18-21, Wonhyo-ro 89-gil, Yongsan-gu, Seoul, Korea	B.A	Feb 10, 1999
Graduate: <b>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b> 110, Hakchon-ro, Yangji-myeon, Cheoin-gu, Yongin- si, Gyeonggi-do, Korea	M.Div	Feb 14, 2006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Byungho Park

Name typed

March 09, 2024

date